

동 아 체 육 관



관장 김 중 영

대한태수도협회시 (63~65년) 날선하고 단단한 체격으로 선수생활을 했던 김 선수의 모습은 유도나 역도를 한사람 처럼보였다.

1957년도에 동아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시작하여 30여년간 태권도와 생활한 그, 20여년간 체육관을 운영하며, 동아대체육관의 이름을 사 용하여왔다.

김 관장은 66년 출판업에 투신, 현재 오성(五星)출판사를 경영하며, 출판사 건물에 40여평의 체육관을 개설 후진양성을 겸하고 있다.

김 관장은 태권도 선수의 육성보다는 건강과 정신측면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며, 충효사상을 중심으로 지(知), 체(體), 용(勇)의 삼육을 기 르는데 중점을 두며, 늘 너그러운 사랑으로 관원들이 내 아들 딸처럼 생각된다고 말한다.

그는 말일성도교회의 장로서 사회복지를 위한 신앙생활도 철저히 하며, 틈틈이 시간을 내어 국내각 중경기의 배심 (1급심판원)으로 활



동하며 서울시협발족당시 이사로 참여하였고, 국민학교연맹 경기분과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기원 새생활분과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모든 체육관을 늘 아끼는 후배들에게 인계하고 새롭게 시작한 것만 도 네차례나 되며, 20년간 체육관

운영에 김 관장의 지도를 받으며 도복을 입은 숫자는 3,000여명이 넘 으며, 유품자 배출도 1,000여명에 달한다.

체육관앞의 영중 국민학교에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어 84년 9월 운동회때 태권도 시범을 보여 좋은 반응을 받았으며 관원 거의가 영중국



(영중국민학교 운동회, 태권도 시범)

교생들로 모범생들이라고 말한다.

영중 국민학교 5학년 재학중인 김 재현군은 1981년 9월에 2품 심사에서 품세상을 수상하였고, 1학년부부터 지금까지 반장을 하게 된것도 태권도 수련의 덕이라고 말한다.

본인의 건물에서 사업과 태권도장을 같이 운영하는 김 관장,

우리 모든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 수련은 후배양성과 취미를 살리는 부업으로 각박하지않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인사(人師)로서의 모범을 보일 그날이 오기까지 모든 사범들의 정성어린 노고가 필요하며, 밝고 여유 있는 태권도인의 모습을 그려보며 발길을 돌렸다. (한)

김관장은

태권도 선수의 육성보다는

건강과 정신측면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며,

충효사상을 중심으로

지(知), 체(體), 용(勇)의 삼육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세기의 철권 무하메드 · 알리 국기원방문

World Heavyweight Boxing Champion Muhammad Ali Visited Kukkiwon.....

세계 프로복싱 헤비급챔피온 무하메드 · 알리가 76년 6월 27일 태권도 종주국을 방문했다.

프로복싱 對 프로레슬링이라는 세기의 격투기를 일본에서 26일 마치고 다음날인 27일 오전 11시 JAL전세기 편으로 내한한 알리는 수행원들만 무려 30여명이나 되었고 이를 취재하기 위한 국 · 내외 보도진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6월의 마지막 주말은 김포국제공항을 흥분의 도가니로 물아넣었다.

이날 김포공항에는 많은 태권도인들과 500여명의 성동상업전수학교의 학생들이 밴드까지 동원하여 대대적인 환영을 하였는데 김 운용회장과 임택근이사는 비행기 트랩까지 나가 알리일행을 맞이하였다.

공항을 나온 알리는 김 운용총재의 안내를 받으며 환영식에 참석하였는데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방문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한국 국민의 뜨거운 환영에 감사한다며 전날의 이노끼와의 대전 결과에 대해서도 이삭을 부려 많은 환영인파의 환호를 받았다.

이어서 공항에서 부터 시청앞까지 카 · 퍼레이드를 벌인 알리 일행은 쾌청한 일요일 오후의 서울 중심가를 질주하며 연도에 늘어선 많은 환영인파에 손을 흔들며 답례했다.

조선호텔에서 여장을 푼 알리는 오후 2시 . 본 조선호텔 볼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태권

도는 동양의 어떤 무술 보다는 뛰어나며 태권도를 완전히 수련한다면 어느 무술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이노끼도 나의 태권도 실력을 두려워 드러누어 싸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한일정이 짧은것이 아쉽다고 말하는 알리는 앞으로도 자기의 대전에서 태권도의 위력적인 펀치를 더욱 연마하여 상대선수들을 다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공항 도착후 환영인파에 싸여있는 알리

◇◇◇미 2사단 방문◇◇◇

이어서 조선호텔을 출발한 알리는 김 운용회장과 함께 미 2사단으로 향했는데 이에 앞서 파주군에 있는 미포병대대에 들려 병사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흑인병사들이 벌이는 태권도 친선경기를 관전하였다. 임시로 가설된 특설링에서 경기를 마친 선수가 알리에게 자기와 한번 경기를 할 것을 제의하자 알리는 링위로 올라가 가소롭다는 듯 입바람을 불며 나의 한주먹은 백만불 짜리라고 조크를 하는 등 천여명의 관중을 열광시키고 다시 2사단으로 가기 위해 승용차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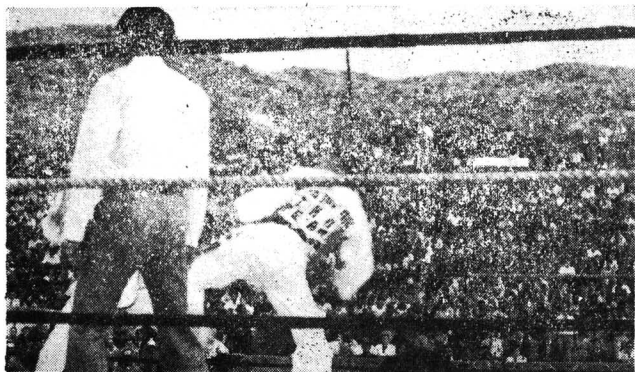


(동두천국민학교 태권도 수련생이 연도변에서 환영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도 태권도 시범경기를 관람하고 알리는 즉석에서 사병들의 질문에 답하며 익살을 부렸는데 전날 이노끼와의 대전에서 오른쪽 다리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친 복싱 시범경기를 보여주어 관중을 웃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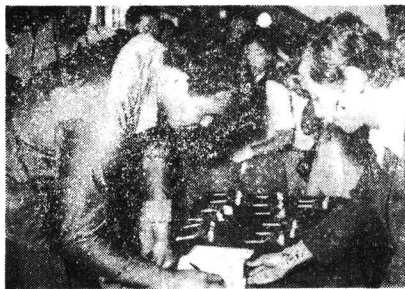
조선호텔에 돌아온 알리는 오후 8시부터 룬볼에서 이 환희 문화방송 사장이 베푸는 만찬회에 참석 구 자춘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행운의 열쇠를 증정받기도 하였다.

부대에 도착하자 사단장실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축구장에 마련된 특설링에 도착하였는데 주위에는 이미 4,000여 사병들이 알리를 맞아 열렬한 환호를 올렸다.



(태권도 시범을 보러 3000여관중이 운집해 있다.)

◇◇◇2일째 알리 국기원 방문◇◇◇



(국기원 도착후 방명록에 서명을 하는 알리)

방한 2일째를 맞은 28일에는 한남동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 참례를 마친뒤 계획에도 없는 국립묘지를 둘러 교육영수여사에 분향한 뒤 예정시간 보다 늦게 11시 50분 국기원을 방문하였다.

국기원 정문에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많은 보도진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김 운용 총재의 안내로 로알·박스에 도착하자 3층에까지 초만원율이룬 3,000여 관중은 열렬히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알리일행을 맞았다.

수많은 내외 보도진들의 후라쉬를 받으며 관중들에게 답례하는 알리는 김 운용총재의 알리의 국기원 방문을 환영한다는 인사말에 태권도 중앙도장인 국기원 방문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태권도를 열심히 수련하여 한국대표선수들과 겨루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어 보겠다고 답사를 하여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남대문국민학교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원인 김 한주군이 꽃다발을 증정하였으며 한국 대표선수들과는 일일이 악수를 교환하며 인사를 나눈 다음 김 운용총재로부터 국기원 명예회원증과 태권도복을 증정받자 그 자리에서 도복을 입고 명예단증을 수여 받았으며 기념품으로 신라시대의 모조금관을 선물받고 기

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이들 수행원들에게도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의 배지와 태권도지, 팜플렛 등을 기념품으로 주었다.



(국기원 방문을 환영하는 김종재의 인사말.)



한국 대표선수들과 인사를 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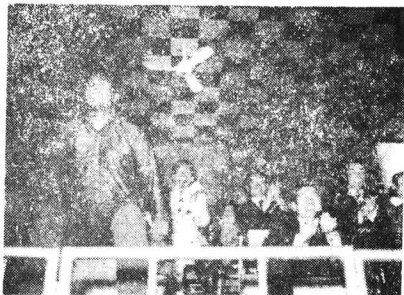
◇◇태권도 묘기에 넋을 잃은 알리◇◇

이어서 벌어진 태권도 시범에는 실제 경기와 같이 주부부심과 배심원까지 동원된 경기시범을 보여 주었는데 제 2회 세계대회에 출전하였던 유영합, 김철환선수가 2분 3회전의 겨루기 시범을 보여 태권도의 위력있는 경기를 실제로 보고 알리와 그의 일행들은 물론 관중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이어서 벌어진 어린이 시범에서는 36명의 남대문국민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일사불란한 기본 동작과 한본 겨루기의 똑같은 기합소리는 장내를 뒤흔들게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180° 회전 뒤돌려차기 옥방축격과 등의 묘기에서 알리는 넋을 잃은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어린이들로서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표정으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익살을 떨기도 하여 장내의 관중은 폭소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겨루기 시범에서는 남·여선수가 막상 막하의 묘기를 보이다가 공격해 들어오는 남자 선수를 뒤돌려 차기로 명중시켜 다운시키자 알리는 무서워 가야겠다는 듯 벌떡 일어나 몇발자욱을 옮기는 등 그의 특유의 제스처를 보여 보도진들의 후라쉬 세례를 받았다. 이어서 성인들의 시범에서도 격파와 겨루기 등 어린이들과는 달리 태권도 위력을 과시했는데 권영훈사범이 보여주는 연속 뒤돌려차기로 7개의 격파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격파되 알리는 또다시 놀란 표정을 짓으며 의자 깊숙히 이마를 짚고 명한 표정을 지어 이날의 태권도 시범은 절정에 달하였으며 초만원에 이른 국기원 장내는 박수와 환호로 떠나갈 듯 하였다.

시범이 끝나자 알리는 오른쪽 다리가 다소 불편한 것을 무릎쓰고 경기장에 내려와 시범을 보여준 어린이들을 악수로 격려하자 장내의 많은 관중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예정시간 보다 1시간이나 늦게 국기원을 떠났다.



(어린이시범에 놀란 알리가 자리를 박챌다.)



(일어난 알리는 명한 표정을 짓고있다.)



(어린이들로서 이해가 안간다는듯 머리를 짚고 눈을 감았다.)

김 운용총재 주최 오찬—영빈관

오후 1시 30분 국기원을 떠난 알리 일행은 김 운용총재가 베푸는 오찬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빈관에 도착 간단한 카테일파티에 이어 오찬을 가졌는데 2시간동안 베풀어진 이날 오찬에서는 알리는 시종 즐거운 표정으로 김총재와 환담을 나누며 식사를 마친 뒤 태권도 중주국방문과 태권도인들의 뜨거운 환영에 다시 한번 감사한다고 말하며 기념촬영도 하였다.

이날 오찬회에는 스나이더주한미국대사 및 스틸웰 8군사령관을 비롯하여 김 중규 서울신문사 사장, 임 택근이사가 자리를 같이 했다.

오찬을 마친뒤 알리는 TV방송국 방문, 서울 시내 산책으로 방한 2일을 마치고 30일 오전 10시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으로 떠났다.



(영빈관에서 열린 만찬회)

★알리 방한의 의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무하메드·알리의 방한은 태권도중주국 방문이라는 제하에 약삭빠른 상흔의 등장으로 일부 뜻있는 이들로 부터 이맛살을 찌프리게 하는 일들도 있었으나 태권도인들의 따뜻한 환영과 태권도세계토착화에서 보다 큰 활력을 넣어 주었다는 데는 아무도 이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는 성공적인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태권도인구 저변확매에도 보다 큰 기여를 한 것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태권도시범이 끝난후 김봉기 지도
사범과 악수를 교환하는 알리)

＝ 사막과 석유의 나라 ＝ 사우디·아라비아 태권도수련생

◇◇◇Saudi Arabian Taekwondoists Training at Kukkiwon◇◇◇

8월 12일 오후 1시 30분 사우디·아라비아 다란(Dhahran)에서 출발하여 김포공항에 도착한 KAL 906 편에는 중동에 파견된 한국인의 기술자와 함께 태권도 종주국을 방문하는 11명의 수련생과 이들을 인솔한 술리만(SULAIMAN) 단장(사우디·아라비아 석유판업대학교 학생처장의 부처가 초조히 세관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때 장내 아나운서멘트에서는 사우디 태권도 수련생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는 스피커의 소리에 막연한 불안감을 말끔히 사라지고 태권도 종주국 방문을 정말 잘했구나 하고 가디(Gadhi) 수련생이 후에 이야기를 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모래사막과 낙타, 타번을 둘러싼 대상의 오아시스를 상상하는 우리의 뇌리에는 오늘날 세계 제일의 산유국으로 20세기 블랙·오일 달러의 부를 누리는 축복받은 민족으로 세계 여러나라로부터 부러움을 갖고있다.

그러나 이 사막과 석유에 나라에서도 세계로 뻗은 태권도는 아직 정통 태권도가 보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태권도의 세계적인 불은 이곳에서도 예외없이 어설픈 태권도시범을 볼 수 있다.

특히 다란(Dhahran)시에 있는 다란 석유판업대학교(Petroleum and Minerals University)의 학생들을 주축으로 하는 태권도 수련은 미국인의 지도아래 겨우 태권도 기본작을 습득하는데 그쳐 기회 있을 때마다 종주국 방문을 계획중



(수련선수들을 일일히 악수로 격려하는 김총재)

김 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의 초청으로 국기원을 방문했다.

11명중 4명은 2년정도의 태권도 수련 경력을 자랑하고 있으나 5급정도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머지 수련생들은 6개월 미만의 수련 경력을 갖고 있으나 한결같이 태권도용어로 차렷 경례, 준비동 우리말을 하고 있어 이역만리의 벽안의 운동자들이나 친숙함을 느끼게 하였다.

특히 지난 7월에 국기원을 방문한 바 있는 무하메드·알리의 소식을 TV를 통하여 보았으며 한국에도 훌륭한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어디에 있느냐고 묻기도 하였다.

이들 수련생은 국기원 옆에 있는 반도유스호텔에 여장을 꾸민 뒤 13일 오전 10시 국기원에 도착, 김 운용총재로부터 『태권도 수련을 위한방

문을 환영하며 짧은 기간이나마 열심히 수련하여 돌아 가셔도 사우디·아라비아의 태권도 보급에 앞장서 달라』고 격려하자 슈리만단장은 수련생들 대표하여 『태권도중주국 방문에 있어 관계임원들의 친절 한 배려에 감사하며 열심히 수련하여 사우디에 돌아가서 태권도 보급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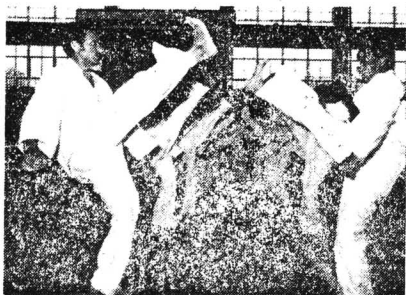
이어서 김총재는 수련생들에게 일일이 악수로 격려하며 기념품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이날 오후 1시부터는 3시간씩 정 진송 사범의 지도아래 수련을 시작하였는데 국기에 대한 예의, 태권도정신 등과 각종 용어 등을 지도 받으며 기본동작 부터 차례로 익혀 나갔다.

태권도 수련을 마치고는 서울의 야경을 관광하는 등 발전한 한국의 이모 저모를 둘러 보았다.

20일 오전 9시 30분에는 수료식이 거행되었는데, 김 윤용총재는 이들 수련생들에게 일일히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당초 이들의 수련계획을 일개월 이상을 예정



앞차기 등 수련에 여념이 없다

하였으나 9월이 아랍의 성월로 돌아가야 된다는 짧은 국기원 수련을 못내 아쉬워하고 기회가 있을 때 친절 한 한국방문을 다시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국인 태권도사범 초청계획도 추진할 것이며 이날 오후 5시 KAL 편으로 돌아갔다.

보내 주신 원고는 최선을 다해 실겠습니다

부디 발전하는 태권도를 위하여 투고하여 주십시오 !

1. 종 료 : 논문(태권도의 발전을 위한 내용)수필, 시, 수련기, 사진, 만화, 단편소설 등

※ 특히 벽지나 도서지방의 학교소식

2. 방 법 : 200자 원고지 10매 단위로 20매, 30매.

3. 보내실곳 : 우편번호 100 서울 중구 무교동 19번지

대한태권도협회 편집실

Korea Sweeps Fight All Events For Second Straigh Championships

한국 8체급석권 2연패

제2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 The 2nd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

지난 73년 5월 세계태권도연맹결성 이래 2회에 걸친 세계대회, 74년 제 1 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이후 중주국을 떠난 첫번째 국제대회인 제 2 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가 76년 10월 16일, 17일 양일간 호주 멜보른시 달라스브르크스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세계태권도연맹 주최 호주태권도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국제경기연맹(GAIF)의 승인을 받은 태권도가국제대회로는 첫 공인대회였다.

참가국을 보면 1회대회의 종합우승팀인 중주국 한국을 비롯 필리핀, 이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주최국인 호주를 포함 8개국 43명의 선수와 26명의 임원이 참가하였는데 2회대회에 비해 1개국이 감소되었으나 이란과, 인도네시아등이 첫 출전을 하였고 1회대회의 준우승국인 자유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불참하였고, 3위였던 크메르가 공산화로 역시 불참하였다. 한편 소수정예로 상위팀을 위협하던 홍콩도 불참하였다.

16일 오전 10시 달라스브르크스 체육관에서는 개최식이 거행되었는데 세계태권도 연맹 김윤용 총재는 축사를 통해 『이번 제 2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는 태권도 세계화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대회로』을원칙광장으로 향한 태권도의 초석이 될것』이라고 강조하고 『아시아의 태권도 형제들이 모인 이번 축제에 각국의 선수들은 선전분투하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대회 팸플릿)

이어서 거행된 경기는 오후 1시까지 예선전을 치루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경기가 속행되었는데 한국의 편급 최윤기선수와 푸라이급 김종기선수, 라이트급의 최재천, 웰터급의 유명환선수가 첫 승리를 거두어 중주국 선수다운 기량을 발휘하였는데 국제심판으로 파견된 정만순, 고철성, 장원석, 이재육등의 활약도 다른 국가의 심판들보다도 돋보였다.

2일째인 17일에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준결승전을 갖았는데 한국 선수들은 뛰어난 기술로 이들을 제압하고 차례로 우승 제 1회대회에 이어 또다시 전체급에 우승을 차지하여 종합 2연패를 차지하였고 아시아는 물론 세계 대회에서도 중주국선수들에게 가장 위협을 주던



라이트급 최재천 선수가 옆차기로 상대선수의 안면에 공격을 가해 득점을 올리고 있다.

한국팀의 전력을 보면 당초 예상했던 대로 중량급에서 고전을 하였고 경량급에서도 각국의 경기력 향상으로 막상막하의 열전을 보였으나 중주국선수다운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전승을 차지하였지만 신장의 열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성과는 중주국을 떠난 국제대회를 무난히 치루어 앞으로 제 3 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도 중주국을 떠날 개최지로 되어 있어 첫 국제대회의 시도라는 점에서 볼때 일단은 성공으로 받아드려야 할 것이며 이번 대회가 국제경기 연맹(GAIF)의 공인을 받은 대회로서 태권도 올림픽가입의 한걸음 닥아서는때 또 하나 업적으로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종합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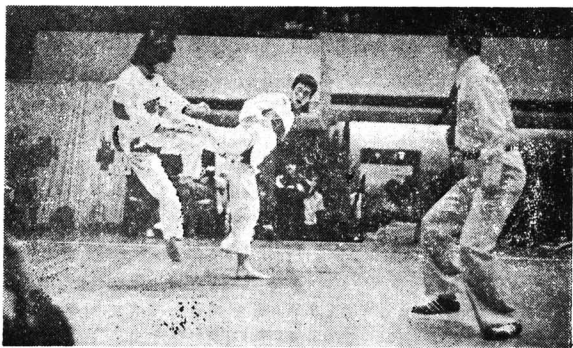
종합우승 : 한 국

2 위 : 호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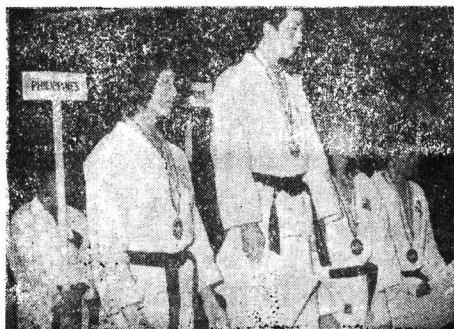
3 위 : 필리핀

자유중국의 불참으로 와자의 세를 보이던 2위는 주최국인 호주가 중량급에서 강세를 보이고 은메달 3개와 동메달 5개로 2위를 차지하였고 3위를 놓고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은메달을 각각 2개씩 획득 팽팽한 대결을 보였으나 동메달에서 필리핀이 4개로 말레이시아를 앞질러 대망의 3위를 차지 지난 제 1 회 대회에서 초반의 탈락을 설욕했다.

한편 전제급의 출전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란팀은 초반에 강적인 한국과 대결 상위 입상을 좌절당하고 말았다.



페더급 김무천 선수가 결승전에서 옆차기로 득점을 올리고 있다. 일본 주재 강정철사범이주심을 보고 있다.



제공별 시상식에서 김무천선수가 1위 시상대에 올라있다.

Medal Standing

Nation	Gold	Silver	Bronze
Korea	8	—	—
Australia	—	3	5
Philippines	—	2	4
Malaysia	—	2	3
Singapore	—	1	3
New Zealand	—	—	1

Results of the 2nd Aisian Taekwondo Championships

Weight	1st place	2nd place	3rd place	
FinWeight	Korea Yoon-Ki Choi	Philippines Roberto Evangelista	Australia Brendan Drew	Singapore —
FlyWeight	Korea Jong-Ki Kim	Philippines Paul Cabatingan	Australia Chee Hong Yan	Malaysia Chong-Tiong Aw
BantamWeight	Korea Tae-Hwan Son	Malaysia Abdul Hamid Mohdnoor	Australia Philippines	Philippines Jaime Martin
FeatherWeight	Korea Moo-Chun Kim	Malaysia Lye Kwong	Australia Martin Hall	Philippines Narcisco Erana
LightWeight	Korea Jae-Chun Choi	Australia Michael Adey	New Zealand Aridan Krishnan Nair	Malaysia Chiang Fai Lum
WelterWeight	Korea Yong-Hap Yu	Singapore John Soh Tiong	Philippines Ramon Tusi	Australia Bradley McDonald
MiddleWeight	Korea Chul-Hwan Kim	Australia Colin Handley	Malaysia Peng Shew Ooi	Singapore Low Fang Lian
HeavyWeight	Korea Duk-Soo Kim	Australia Shane Bray	Philippines Elmer Pato	Singapore Hari Singh

제2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파견 한국대표선수선발전

Korea National Team for the 2nd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3차전까지 치뤘 8명의 대표선수 뽑아—

제 2 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파견 한국대표선수 선발 최종경기가 76년 7월 22일, 23일 양일간 국기원에서 열렸다.

1차전(6월 25일, 26일)에서 269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체급별 토너먼트로 거행된 경기에서 한 국급에서 1, 2위 16명과 2차전(7월 10일~11일)에서 265명의 선수 중에서 역시 16명을 가려 냈으며 최종전에서는 총 32명의 선수가 체급별 리그전으로 2분 3회전 승자승(勝者勝)으로 거행되었다.

첫날인 22일에는 오전 8시 계체를 마치고 대진추첨에 들어갔는데 전 선수가 한번씩 경기를 치룰 수 있으나 한체급의 승패가 탈락의 영향을 좌우하고 있어 경기에 임하는 선수나 이를 지켜보는 경기입원들도 신경을 들구는 신중한 경기의 연속으로 금년 들어 가장 적은 관객이 주시하는 경기장 주변과는 달리 경기 내용은 7월의 무더위와 함께 가장 열기를 내뿜는 가장 치열한 절전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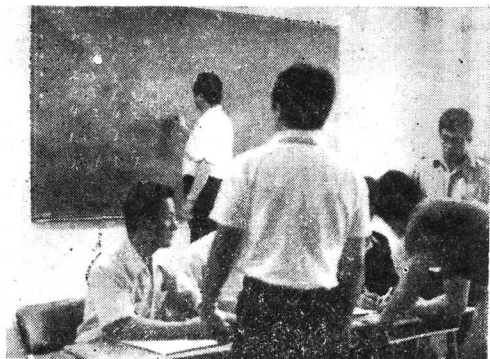
체급별 경기 내용을 보면,

핀급에서는 최 윤기선수(청주기계공고 2학년)가 전승으로 대표선수에 선발되었는데 정 근표선수를 1회전 중반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정선수를 뒤돌려 점투차기로 안면에 강

타를 넣어 KO승을 기록하고 차 청훈선수가 몸무게가 오버되어 실격을 당해 2승을 기록하였다

한편 송 상현(동대문상고) 선수와 정 근표 선수의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하였으나 최윤기 선수가 송 상현선수를 맞아 정확한 공격찬스와 독넓은 득점력으로 송선수를 판정으로 물리쳐전승으로 대표선수에 선발되었는데 최선수가 74년 첫 소년대전에 출전한 이래 국기원 경기장을 불과 4번째에서 대망의 대표선수에 선발되어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푸라이급에서도 김 종기선수(서울체육고 2학



(대진작성에서 부터 신중을 기하고 있는 코치들)

년)가 전승으로 선발되었는데 윤 종옥(일반) 선수를 맞아 판정으로 물리치고 2일째인 23일에는 김 영국선수(서울체육고등학교)가 윤선수에게 기회를 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이길홍(천호상전) 선수를 역시 판정으로 물리쳐 3승을 기록 대표선수에 선발되었다.

뺨타급에서는 제 2회 세계대회와 유럽원정 한국대표선수를 지킨 손 태환선수(해군)는 명지대학에서 해군으로 적을 옮긴 후 해국에서는 유일하게 대표선수로 선발되는 영광을 차지하였는데 제 1회 아시아대회에서의 우승자인 주 상현선수와 박 오성(서울체육고등학교), 김 영훈(서울체육고등학교) 선수들의 포위를 뚫고 3승 전승으로 대표선수에 선발되었다. 비교적 신장면에서 열세를 보인 손 선수는 공격찬스에 민감하고 경기운영에 노력하여 상대방 선수의 공격미스를우히려 득점과 연결시키는 공격을 퍼부어 각각 판정승을 기록 전승하였는데 김 영훈선수와와 대전에서는 다소 고전하였으며 주 상현선수와 박 오성 선수와의 대전에서는 비교적 여유있는 게임운영을 보이고 선발되었다.

광을 차지하였는데 2일째인 마지막 경기로 이를 지켜보는 코치, 관계임원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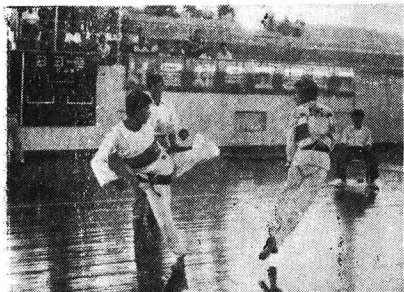
라이트급에서는 이일째인 37년 게임에서 판가름이 났는데 유 하영선수(서울체육고등학교 3년)와 최 재천선수(서울체육고등학교 3년)가 막상 막하의 절전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경기를 끌고 나갔는데 최 재천선수가 김 세혁선수(동아대 선수와 비겨 다소 불리한 여건에서 유 하영선수를 맞았으나 최 재천선수가 유 하영선수를 판정으로 물리쳐 2승 1무로 라이트급 대표선수로 선발되었다.

이 경기에서는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으로 두 선수가 서로의 장, 단점까지 잘 파악하고 있어 어느 게임 보다도 신중하고도 어려운 경기운영을 하였는데 이 대전이 선발 결정을 짓는 중요한 게임이었으나 코치는 아예 이들 두 선수의 기량에 맡겨 가장 시시하나 가장 어려운 게임일보였으며 1, 2라운드를 득점없이 끝냈으나 3라운드에서 다소 우세한 경기운영으로 최 재천선수가 판정승을 거두었다.

웰터급에서는 제 2회 세계대회와 유럽원정 한국대표로 75년도 태권도 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던 유 영합선수(육군)가 라이트급에서 한체급을 올려 웰터급에서 전승으로 선발되었다.

대전형질이 풍부하고 침착한 경기운영으로 공격과 방어에서 확실히 득점과 연결시키는 유영합선수는 비교적 안정권에서 득점위주로 경기를 운영하여 판정승을 거두었는데 정 수근선수와와의 대전에서 고전을 하는듯 다소 불안감을 안겨 주기도 하였으나 3승을 기록 대표선수 선발의 영예를 다시 한번 차지하였다.

미들급에서도 김 철환선수(육군)가 한 체급을 올려 전승을 기록하고 대표선수에 선발되었는데 73년 제 1회 세계대회 이후 제 1회 아시아대회 유럽원정 한국대표 등 화려한 커리어로 출다름치다가 제 2회 세계대회 한국대표선수 선발에서 탈락 와신상담끝에 75년도 최우수선수 선발전에서 웰터급에서 우승 재기한 이래 마 상현(청주농고) 선수와 대결에서 근소한 득점차로 판정승



민급의 최윤기선수와 송상현선수의 대결

페더급에서는 김 무천선수(동양공업전문학교5학년)가 가장 힘겨우나 가장 큰 영광을 얻은 선수가 되었는데 제 1회 아시아대회에 한국대표로 출전하였던 박원(육군) 선수와 2승1무로 동울까지 끌고 갔으나 이 두 선수가 초반에서 비겨 승자승원칙도 적용이 안돼 연장전까지 물고 갔으나 다시 무승부를 기록 후침에서 대표선수의 영



유 영합선수가 뒤돌려차기로 득점을
올리고 있는 웰터급 경기

을 거두고 제 2 회 세계대회 한국대표 선발전에서 김 무영선수(단국대학교)에게 마신 고배를 설욕하고 힘겹게 대표선수로 선발되었다.

마지막 **헤비급**에서는 김 덕수(특전사) 선수가 2승 1무로 태권도에 데뷔한 이래 최고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첫 계임을 김 정식(육군) 선수와 무무부로 끝낸 김 덕수선수는 오 유열(해군) 선수와 안 규현(성균관대학교) 선수를 차례로 물리치고 2승 1무를 기록 가장 무거운 80kg 이상에서 대표선수로 선발되었다.

이렇듯 이일간 거행된 대표선수 최종선발전에서 8명의 선수를 가려냈다. 1, 2차 선발전에서 모두 634명의 선수들이 출전 해외에서 갖는 첫 번째 태권도경기에 참가하는 한국대표선수를 선발했는데 1차전에서 탈락된 선수가 2차전에 다시 출전하여 실제로는 400여명의 선수가각축을 벌인 셈이다.

이중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라이트급 이하의 경량급으로 물러는데 유명선수가 신진선수들에게 무릎을 꿇는 경우가 속출되었다.

그러나 대회경험이 많은 유 영합, 김 철한 선

수가 중량급의 보루를 지켰고 헤비급의 김 덕수 선수의 선발이 이번 선발에서 가장 큰 변화를보였다고 할 수 있겠다.

선발된 선수들의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선수가 3명이 선발되었고 군선수가 4명 대학선수가 1명이 선발되었는데 이러한 선발 분포를 볼때 대학 선수들의 약체를 볼 수 있으며 고교선수의 경량급 차지는 투지의 승리라 볼 수 있겠다.

선발된 8명의 선수는 약 40일 간의 합동훈련을 목표로 8월 30일부터 국기원에서 매일 5시간씩 훈련에 들어갔는데 처음 출전하는 지역국제대회의 해외출전을 앞두고 보다 성의있는 수련을 당부한다. 특히 국제대회의 경기결과를 비교할 때 신장에서의 열세와 체질에서의 열세를 감안한다면 기술의 우위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를 극복하여 200萬 태권도인들에게 보다 큰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거듭 당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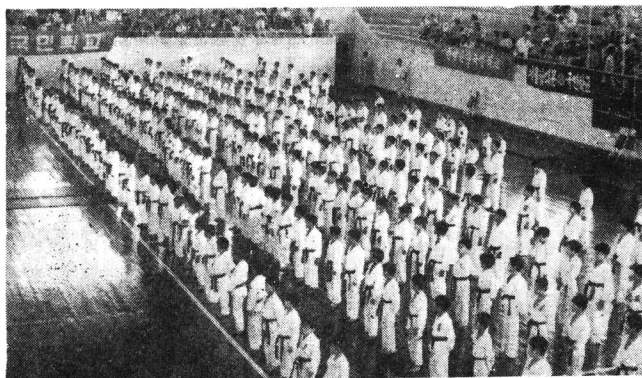
미들급에서 김철한 선수가 발들어 내려찍기를 성공시켜 득점을 올리고 있다.

The 2nd Presidential Flag Primary School Taekwondo Tournament

제2회 대한태권도협회 회장기 쟁탈

전국 국민학교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남대문국민학교 2연패



제 2 회 대한태권도협회 회장기 쟁탈 전국 국민학교 단체대항 태권도선수권대회가 7월 31일 부터 8월 1일 양일간 국민학교에서 열렸다.

한국 국민학교 태권도연맹의 주최·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북 완산국민학교를 비롯 부산 배정국민학교 등 369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전 2일간의 경기가 벌어졌다.

첫날인 31일에는 오전 9시에 개회식을 갖었는데 1회대회 우승교인 남대문국민학교가 우승기 반환이 있는 다음 9시 40분 부터 경기가 시작되었다.

개회식에 앞서 계체에서는 37명이 체중이 넘쳐 실격당하고 말았는데 멀리 지방에서 출전올한 선수들과 학부모들은 안타까운 발을 굴으며 어쩔줄을 몰랐다. 이날 게임은 오후 7시까지 306

게임으로 준준결승 까지를 마쳤는데 경기운영등 대회 진행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보였으나 선수들의 실력은 전년에 비해 월등히 향상되어 마치 성인들의 우수선수 선발전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점전을 벌였는데 이들의 실력은 성인들의 묘기를 거의 다 보이고 있어 앞으로 기술향상이라는 과제에서 오히려 태만한 우려가 있을까 염려할 정도로 경기력의 향상은 괄목할만 하였다.

경기가 계속될 때마다 각급 학교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종합점수 계산에 신경을 곤두세웠는데 단일팀을 내세운 남대문국민학교가 선두에 나섰으며 광희국민학교, 미동국민학교, 완산국민학교, 배정 등이 뒤쫓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A,B,C팀 까지 출전시켜 갖은 학교출전으로 열린 응원을 벌였으나 실제 종합전적을 지키기 위한 점수 계산에서는 당초 예상하였던



공격해 들어오는 선수를 재빠르게 받아치기로
특점을 올리고 있는 페터급 이 재용선수

대로 진출을 못한 전북완산, 부산배정, 성남제2
등은 초조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첫날 경기를마
쳤다.

2일째인 8월 1일에는 준준결승 부터 경기가속
행되었는데 2분 2회전으로 선수들의 충분한 기
량을 발휘하기에는 다소 경기시간이 짧은 듯 하
였으나 백증한 경기력의 운영으로 많은 선수들
이 비겨 계체승을 걷우는 등 8일초의 무더운 열
기와 함께 시간이 갈수록 경기는 더욱 치열해져
만 갔다.

16명의 결승 진출자를 가려놓고 경기는 한코
트를 사용하여 2분 3회전으로 속행되었는데 이
미 종합전적은 결승전 이전에 판결이 나 서울남
대문국민학교가 329점을 확보 우승이 확정되었
으며 서울광희국민학교가 306점으로 준우승을 서
울미동국민학교가 277점을 얻어 3위를 차지하였
다.

대회결과를 보면 참가교수가 다소 적어진 감
도 있으나 전국의 고른 분포로 대회에 출전한지
방팀의 출전을 격려하며 체점방법에 전국체전의
체점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체급별 등록선수가 고
른 분포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가장 많은 체급의

출전경우 개인 금메달에서 66점을 획득하나
가장 적은 핀급의 경우 16점을 획득하여 적
은 참가인원의 3개 금메달 획득이 라이트급
1개의 은메달에 못미치는 모순이 있었다.

또한 체급에서의 문제점도 커다란 속제로
남고 있는데 국민학교 5,6학년의 경우 20kg
를 상회하는 선수들이 거의 없어 7,8학년을
경량급 선수에 포함시키는 사태가 지적이
돼 말썽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점
은 선수 출전을 5,6학년으로 제한하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선수들의 체력관리에 있어서도 계체
에서 10% 정도가 실력을 당하는 사태는 승
부에만 집착하는 각급학교 지도자들에게 좀
더 냉정한 각성이 필요할 것이다 가장 큰 근본
적인 문제점은 보다 갖은 대회개최로 이들 동심
들에게 고른 입상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대회 개
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대회의
가장 큰 수확은 월등히 향상된 경기력의 향상이
다. 상급학교에 진학하여서도 이러한 우수한 기
량을 계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각 선수들에
게 당부한다.



(발들어 내려찍기등 성인들의 실력을 능가하고 있다)



종합우승을 차지한 서울남대문국민학교 팀

종합전적

순위	학 교 명	점 수
1	서울남대문국민학교	329.0
2	서울광희국민학교	306.0
3	서울미동국민학교	277.0

체급별 입상자 명단

체급	순위	성 명	학 교 명	체급	순위	성 명	학 교 명
원 급	1	홍 재 선	서울광희	라 이 트 급	1	김 경 수	서울남대문
	2	오 영 훈	서울남대문		2	원 창 석	서울덕수
	3	이 인 환	경기만안		3	김 지 용	서울윤암
	3	김 형 목	충북수봉		3	권 병 삼	서울전농
푸 라 이 급	1	박 회 영	서울북가좌	웨 터 급	1	장 영 삼	서울남대문
	2	서 동 원	서울홍파		2	전 재 욱	부산배정
	3	이 재 학	서울윤암		3	김 대 성	서울한남
	3	이 종 선	서울광희		3	양 재 형	서울미동
반 탐 급	1	김 용 구	인천부평	미 들 급	1	김 상 태	서울남대문
	2	김 지 태	서울광희		2	김 종 훈	서울남정
	3	조 남 진	서울동명		3	김 덕 현	서울월곡
	3	장 봉 길	경기만안		3	김 경 성	서울북가좌
페 터 급	1	김 순 태	서울동명	헤 비 급	1	김 상 덕	서울남정
	2	전 주 언	전주완산		2	양 연 동	서울동명
	3	김 민 영	서울북가좌		3	김 종 대	서울미동
	3	이 재 용	서울남대문		3	한 경 완	서울광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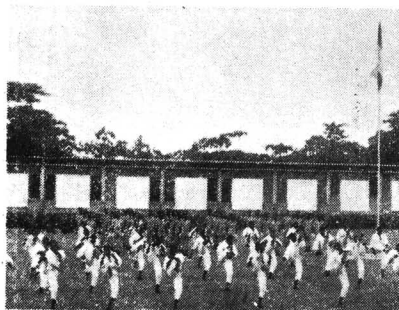
〈아이보리코스트〉 〈Ivory Cost〉

〈필리핀〉 〈Pilippines〉

자랑스런 한국인

Proud Koreans

김 용 태 사범



(군부대에서 기본동작을 지도하는 김용태 사범(좌단))

검은 대륙에 피는 한민족의 얼은 태권도의 구령소리로 아프리카 정글에 메아리치고 있다.

자랑스런 한국인! 한국을 빛내는 Korean들은 태양이 작열하는 뜨거운 열기를 태권도의 정신으로 식혀 나가며 보람찬 내일을 기대하며 분투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사범들이 그렇듯이 신생독립국의 경우 군과 경찰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태권도 사범들의 이야기는 아이보리·코스트에서 김용태 사범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비교적 일찍이 뿌리내린 아이보리·코스트의 태권도 현황은 점차적으로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아프리카연맹 결성을 꿈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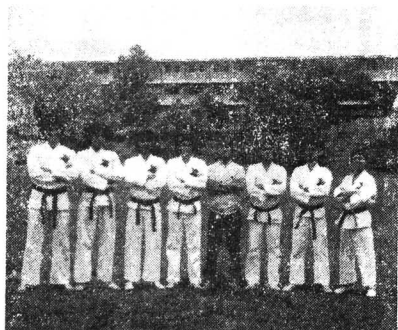
더우기 민간외교사절로서 한국을 이해하는 데 가장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이곳 사범들의 보다 큰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육군사관학교에

태권도 지도

Taekwondo as a martial defense art

홍 성 천 사범



(필리핀 육군사관학교에서 합동훈련을 받고 있는 제2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대표 선수들)

필리핀태권도의 기반은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는 비교적 열세에 놓여 있으나 꾸준한 대회의 참가 등 필리핀태권도인들의 노력으로 강속의 발전은 거듭하고 있다.

그런 중에도 김운용회장의 몬트리올 외교의 소산과 필리핀국방부의 결정으로 지난 9월부터 홍성천사범의 활약은 필리핀 육군사관학교에 태권도를 정식과목으로 채택 수련하고 있으며 제2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상위입상을 목표로 맹훈련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해 왔다.

유럽 태권도 친선 단체 대항전

European Taekwondo Tournament

제 1 회 유럽태권도선수권대회가 지난 5월 스페인의 바세로니아에서 개최된 이래 유럽태권도연맹 승인아래 처음으로 76년 9월 25일 화란의 덴·하그(Den Haag)市 체육관에서 7개국 10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유럽태권도 친선단체대항전이 열려 성황을 이루었다.

체급별 5명이 단체전 토너먼트로 거행된 이날 대회에서 화란주재 한국대사관의 성부영사를 비롯 툴텐후트(Thooft) 유럽태권도연맹부회장관과 화란한인회회장 임기만씨 등이 귀빈으로 참석하였으며 심판원으로는 유럽주재 5개국의 15명의 사범이 활약하였다.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5시간동안 벌어진 이날 경기에서는 Z-n/Hoφ/and팀이 1위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프랑스의 Paris팀이 2위 그리고 덴마크의 Kopenhagen팀이 3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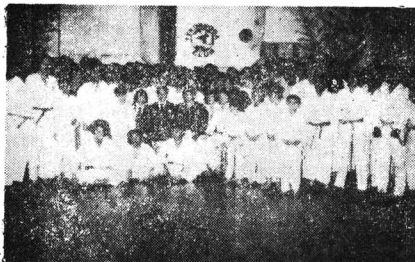
그러나 대회개최 이전에 대회명칭을 둘러싸고 화란태권도협회의 물의가 있었는데 유럽주재사범들의 협조로 무사히 대회를 끝마쳤다고 이경명 구라파태권도 연맹기술원장이 소식을 전해왔다.

〈네델란드〉.....〈Nederland〉

태권도 국제 여름학교 개최

International Taekwondo Summer School

—Mr. Pardoel—



(파돌씨와 수련생)

네델란드 부도 본드(Budo Bond Nederland) 주최로 지난 76년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샌트푸르트(Santpoot)에서 열렸다.

북해 해변에 있는 샌트푸르트 태권도 여름학교는 네델란드뿐만 아니라, 덴마크, 서독, 벨지움을 비롯 멀리 터키에서까지 많은 태권도유단자를 행사에 참가하였는데 건강하게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 태권도의 기술향상과 심판교육등을 실시하였다.

전국 승단 심사대회 개최

National Dan Promotion test

김 정 판 사범

안정된 기반으로

정착한 태권도 Taekwondo Roots in Turkey

강 창 진 사범



(강창진 사범 시범 포스터)

제 1 회 구라파 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하였으며 치하트·우스칸 터키 태권도협회장의 ETU 부회장으로 선임된 터키는 태권도의 열기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

터키의 유력지들이 연일 대서특필로 보도한 터키 태권도현황은 공식적인 전국 승단심사를 앙카라실내체육관에서 필기시험, 품세시험에서는 태극품세와 고려품세 등 국기원 심사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태권도 권위에 보다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제 2 회 구라파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유치한 터키협회는 그곳 임원들을 비롯 모든 터키 태권도인들이 일치단결하여 준비중에 있다고 전해 왔다.

지난 17초에도 소개된 바 있는 강창진 사범의 활약은 경찰과 군에 태권도를 보급하는데 이어 아테네(Athens)와 솔로니카(Sorlonica)에도 도장을 개설 본격적인 태권도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전해 왔다.

채명신 주그리스한국대사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지중해의 스포츠 열기는 차렷과, 경례 등 해돋는 동방의 나라 코리야의 언어가 그리 낮설지 않을 것이며 시간을 더할수록 그리스의 많은 태권도형제들도 세계권도대회에서 보다 높은 기상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올것을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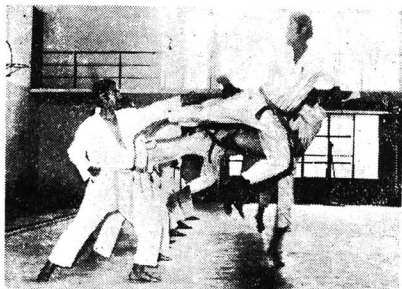
〈모로코〉.....〈Moroco〉

종주국 수련 원하는

모로코 태권도인들

김 명 옥 사범

**Morocco Entertain Hope to
Learn Taekwondo in Korea**



(수련에 열중하는 경호원들)

74년 4월 이땅에 태권도를 정식으로 보급시키는데 성공한 김명옥 이용기 사범은 제 2 회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 모로코팀에 감투상을 수상받기까지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모로코왕실 경호원 200명을 비롯 국왕 핫산Ⅱ세에 매일 15분씩 태권도 기본동작을 지도하고 있으며 국왕 경호실의 군인들에게도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처음 모로코에 도착하여서는 많은 타 동양무술 사범들간에 치열한 경합끝에 태권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이들 사범은 핫산국왕의 인정으로 태권도보급전망은 밝기만하다. 그러나 이곳의 일반인들은 유학생들에게 소규모로 지도를 받고 있는데 제 2 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이후 모로코의 반응은 더 많은 태권도사범을 요구하고 있으

나, 아직 구체적인 실현단계는 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한다.

특히 국왕의 태권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이들 수련생들을 국기원에 훈련을 보낼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권도가 세계곳곳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그곳 국가의 지도층의 지대한 관심으로 알차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성과에는 해외주재사범들의 보다 큰 노력과 종주국에서의 후원, 주재국 대사관의 협조등 삼위일체가 되어 한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데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독〉.....〈Germany〉

박 도 현 사범



가장 많이 가장 이동이 빈번한 독일태권도현황은 유럽에서는 한국인사범들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곳이다.

특히 외국인들의 경영을 인정치 않는 독일내에서는 점차적으로 태권도사범들이 열세에 놓이게 되는 것도 인지된 사실이지만 노력과 근면으로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무릎쓰고 태권도 보급에 온 정성을 바치고 있는 박도현사범은 슈레버(Schreber)에서 착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전해 왔다.

Colombia Joins in the W.T.F

—콜롬비아 태권도협회

세계 태권도 연맹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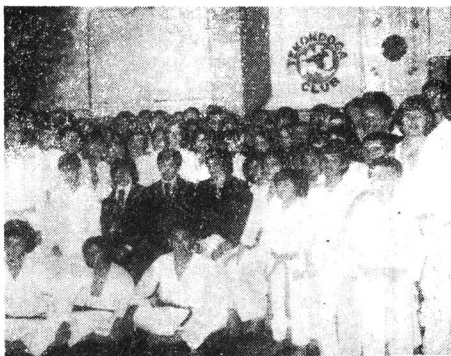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접하고 남미와 북미를 잇는 파나마를 접경으로 하는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에서는 다혈질의 민족으로 동양의 무술이 성행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도 산발적으로 보급되는 태권도는 타 동양무술을 제치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협회 결성 등을 점차적으로 조직화되어 가고 있으며 안정을 찾고 있다.

그런 중에도 늦게 출발하여 맹렬한 속도로 태권도의 인식을 새롭게 하며 콜롬비아태권도협회를 결성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신청을 내게 하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기정사범은 콜롬비아 태권도협회 기술지도위원장으로 활약하며 콜롬비아대학 각급 고등학교 등지에서 태권도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남미의 아카데미라 불리는 이곳 수도 보고타시에서는 이미 합기도, 쿵푸 등 타 무술도장의 문을 닫게 할 정도로 태권도의 열기는 대단하다고 전해 왔다.

또한 메데진대학(Medezin)과 안티오키아(Antioquia) 주립대학에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김용석사범의 맹활약으로 앞으로의 콜롬비아 태권도 전망을 낙관하고 있다고 전해 왔다.



이기정 사범과 수련생들



김용석 사범과 수련생들

미국의 태권도 종합소식 Taekwondo News From U.S



오레곤주 최 태 용 사범

오레곤주 포트랜드 주립대학(Portland State College) 태권도강사이며 미체육회 서북부태권도 회장으로 피선된 최태용사범은 이곳 오레곤주에서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으며 앞으로의 미국 태권도 전망을 낙관한다고 전해왔다.

중서부 태권도 유단자회 결성 Black Belter Club in Colorado

—콜로라도주 덴버시—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는 중서부지역 태권도 유단자회를 조직 태권도인들의 자질향상과 기술향상을 위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창립총회를 갖았다. 이들은 산발적으로 실시하던 각종 대회를 통합하여 권위있는 대회로 발전시키며 77년 제 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도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을 양성할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외에 합동식사대회 등을 통해 태권도의 권위를 한층 더 높일 것이라고 준비위원회로 활약하는 정병성 사범이 소식을 전해 왔다.



—웨스콘진주 주 창 남 사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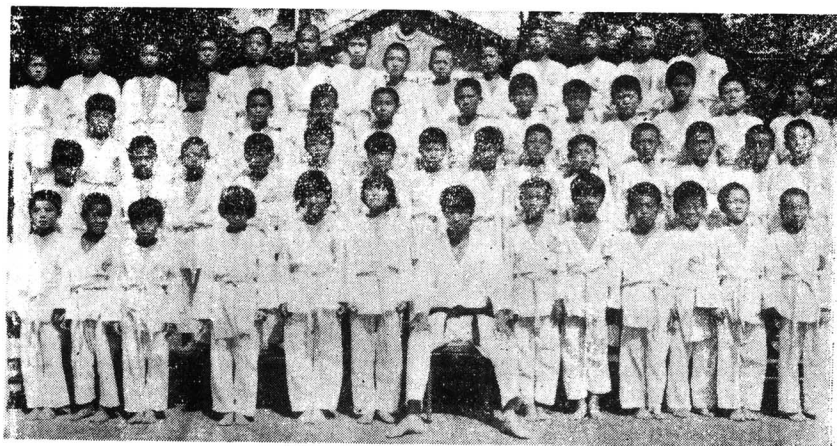
미국 제일의 낙농 위스콘신(Wisconsin), 우리 나라로 비교한다면 충청도와 같이 보수적이며 인정미에 넘치는 주민들은 호수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전원도시에 광대한 농토는 400여km를 달려도 끝없이 펼쳐지는 농촌의 풍경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천부의 나라라는 실감이 든다.

독립 200주년을 맞은 이들의 축제분위기와 달리 생존경쟁과 성공하여야만 한다는 무서운 집념으로 오늘도 태권도의 힘찬 구령소리로 두근 온 산하를 가슴에 품고 내일의 보람찬 결과를 기약하며 앞차기와 옆차기를 힘차게 뻗어 보는 주창남사범은 인근 위성도시에도 도장을 개설 착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Primary School boys Learn Patriotism Through Taekwondo

—태권도로 애국하는 길배워—

제주도 무릉국민학교



(하얀 도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한 태권도 부원들 가운데 앉은 김형우 지도교사)

전교생 246명 웅만한 학교의 한학년 숫자이다 76년 3월에 전입하여 어인 6개월 학교 담당사 두를 체육과 생활로 배정 받은 나는 어린이 체력과 생활태도에 자연히 관심이 갔다. 활발치 못하고 강인하지 못하며 행동이 조잡하다는 교장선생님의 말씀과 무언가의 자극이 아쉽다는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어린이들에게 배워주기로 결심하였다. 국민학교때부터 틈틈히 익혔고 입대하기 전까지도 도장문을 가끔 드나들었지만 군생활 3년의 태권도에 정진하지 못한 기간과 제대후 3년 동안의 공백 또는 하나로 묶여진 새로운 태권도의 용어와 품세 모든것이 걱정이 되었지만 배우며 가르치자는 결심아래 우선 대상 인원을 4학년 이상 남학생

전원 62명과 여학생 3명 65명을 정했다. 마침 학교 관사에 살고있는 나는 어린이 지도 시간을 새벽에 하기로 하고 시간을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매일 1시간씩 수련 하기로 하였다.

가난한 농촌 실정에 어린이 스스로 도복을 마련한다는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어서 교장선생님과 의논 끝에 교장선생님과 나의 봉급을 털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도복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옷가게에서 65벌을 가져왔다. 신기한듯 두리번 거리는 어린이들에게 하얀도복을 맡겨히 입혀주니 태권도란 말만 들어왔던 어린이들이 있기에 무척 기뻐 날뛰던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지도목표를 설정했다.



강익진교장

우선 생활태도의 개선이다. 태권도의 의의가 하나의 인간을 다듬어 바르고 참된 인품을 만드는 근원과 애국하는 길잡이가 되려 하는데 있다고 보아

첫째 : 모든일에 자신을 가질수 있고 담력을기르며

둘째 : 판단력과 결단성을 배양하여 원만한 통솔력과 자주적인 생활태도를 함양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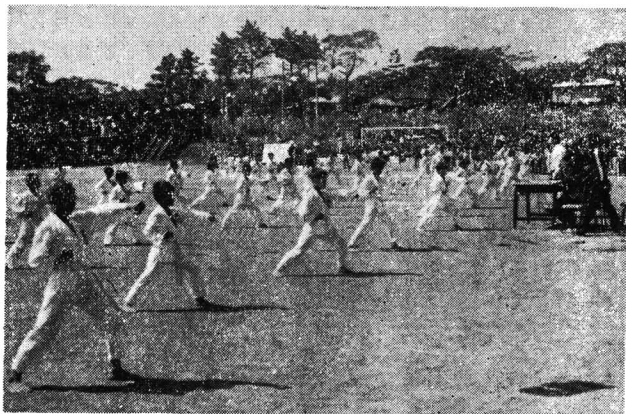
셋째 : 유연하고 강인한 체력을 기르자는데 있다고 생각했다.

정신적인 개혁을 하기 위하여 매일 15분씩 정신훈화를 하고 조잡하고 비열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어김없이 반성을 하도록 엄하게 촉구 하였다.

부지런한 생활태도를 위하여 나 자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오나 바람이부나 교실과 복도에서 수련을 했다. 고향집 계사때는 택시를 타고 새벽 4시에 돌아 온적도 있었고 명절을 안본다고 부모님께 책망도 받았지만 그러나 아침 6시면 나를 기다리는 그 포랑 포랑한 순망울을 생각하면 어찌 하루인들 실수 있으랴

차츰 학부모님들의 호의도 여깃들지고 우선어린이들의 태도가 부지런 해졌다. 아침 일찍 일어나며 조잡한 행동이 어긋지고 활발해지고 어떤 기개마저 넘친다.

이제 꿈이 있다면 이어린이들에게 의지와 용기를 계속해서 심어주어 한사람의 태권도인물육성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애국하는길을 태권도를 통하여 열어줄수 있게되길 바랄뿐이다.



운동회가 끝난후 넓은 운동장에서 첫 심사를 보고있다

표 지 설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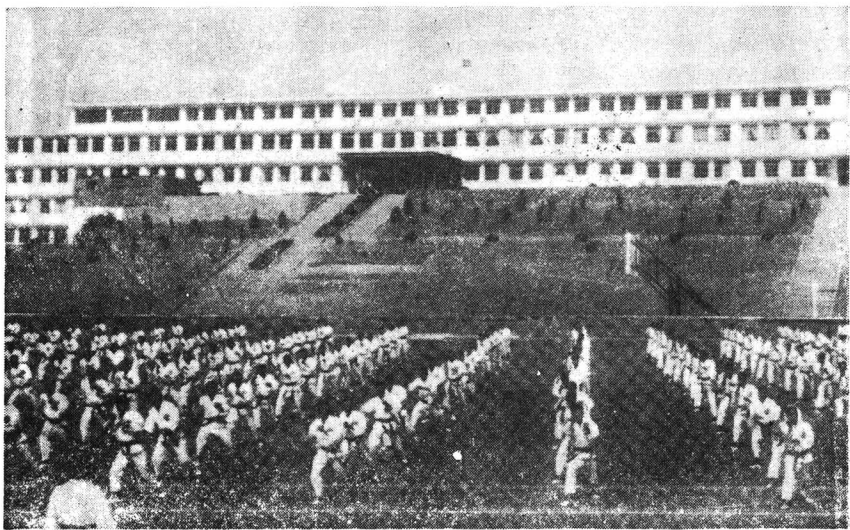
광복 3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3군사관학교 대항 경기에 앞서 육군공수 특전단의 태권도 연주시범장면이다. 700여명의 태권도 마스케임은 관중은 물론 TV를 통해본 시청자들도 우리나라의 국력과 함께 비례하는 태권도의 세계화에 역사의 자료로서 우리의 가슴을 호뭇하게 하였다.

표지촬영 <金 永 煥>

태권도는 국민총화의 밑거름

Taekwondo Builds up National Consensus

경기도 성남 성일중고등학교



특별활동시간에 품세를 하고 있는 전교생들

경기도 성남시에서 남쪽으로 시청을 마주보는 공설운동장을 위로한 성일중고등학교는 대지 2만평의 초현대식 건물로 1974년 개교, 설립된지 불과 2년만에 교육의 전당으로 착실히 기반을 닦고 있다.

진리, 정의, 애국을 학교 교훈으로 중학교 1,000명 고등학교 1,000명이 김동석이사장을 중

심으로 전인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착실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할 때, 새로운 역사는 창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한 김동석 이사장은 75년초 국방교육의 일환으로 태권도를 교기로 삼은뒤, 전교생의 유단화를 목표로 3개년계획을 수립함



김동석 이사장

에는 특별지도기간을 설정 전교생의 유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현재 2,000여명이 3~4급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신상순체육교 (1기 지도자교육수로 6단)는 말하고 있다.

전교생의 유단화와 병행하여 경기출전에도 주력하여 입학전의 유단자 120여명을 모아 방과후에는 경기를 위한 수련으로 고된 훈련을 거듭, 75년말 제 1회연세대학교총장기쟁탈태권도대회에서는 동메달 2개를 따냈다. 이렇게 첫 대회를 마친 성일태권도부는 76년에 들어 신인선수권대회에서 고등부의 은메달 2개를 획득 진일보하니 76년 제 3회중고연맹전에서는 금메달까지 획득하여 종합 3위를 차지 고등학교태권도부의 다크호스로 부각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제11회대통령하사기쟁탈전에서 고등부 핀급의 이승형 선수가 대망의 금메달을 획득 앞으로 태권도부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태권도부 수련장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으나, 김동석 이사장은 『오늘날 국가적 실정으로 볼 때 개개인의 강인한 체력은 국민총화의 밑거름이 된다는 신념아래 전국민의 유단화에 선봉이 될 수 있는 성일학원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어느대회든지 출전을 하여 3년 이내에 태권도의 새로운 강자로 군림하겠다』고 청사진을 펼쳤다.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체육관련 립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일여자중학교도 여자 태권도부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상순 체육교사는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대한 기본계획은 비단 우수선수 양성에만 급급하지 말고, 전교생의 유단화 전국민의 유단화로 향한 착실한 한거름 한거름에 무한한 전진을 기대 해보며 학교당국과, 지도자, 선수가 삼위일체가 된 태권도 백년대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 선봉이 될 것을 당부해 본다.



76년 경기출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과 함께 뒷줄 중앙이 신상순 사범

태권도로 주체성 있는

민주교육이념 구현

Taekwondo as part of School Activities

경기도 동두천 국민학교

6·25의 참상으로 절단된 한반도의 북단 동두천(東豆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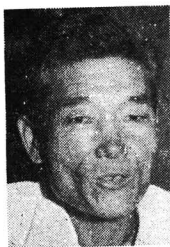
예전에는 양주군의 밤나무 집산지로 유명하였으나 20세기 한민족의 가장 큰 희극의 유산은 기지촌이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별칭이 따라 붙는다.

이러한 특수한 지역환경은 과거 외래 풍조의 대명사와도 같았던 동두천이 오늘날 조국근대화의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군내 7개국민학교에서도 주체성있는 민족교육에 앞장을 서고 있다.

특히 동두천국민학교는 산발적인 태권도 지도를 75년 9월부터는 이정석 교장의 결심아래 교기로 결정 49학급 3,300명 전원에게 매일 아침 조희후 1시간씩 실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로 있었으나 주위 군부대에서 외국인 태권도수련에 감명을 받고 남·녀학생 구분없는 태권도의 구령소리는 힘차기만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이정석 교장은 『전체적인 인격형성에 있어서 무엇인가 빠졌고 이들에게 자부심과 우리의 것이라는 긍지를 갖게하는데 무엇보다도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고 말한다.



이정석 교장

특히 지난 7월 세계해비급복싱참피온 두하메드·알리의 미 2사단 방문때에는 연도변에 150여명의 교사리같은 태권도수련생들이 하얀도복을 입고 알리의 방문을 환영해 이들의 보람은 한층 더 했다고 한다.

이제 전국의 각급 국민학교에서는 교기로 또는 특별활동으로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으며 경기에 출전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전적만을 기대하지 않는 꾸준한 정진으로 인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의 동실에 태권도정신을 함양시켜 모범된 국민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한다.



(경기출전을 목표로 맹훈련을 거듭하는 태권도부)

Police Officers Train Taekwondo

조국을 지키는 태권도인들

서울시경 제201 전투경찰대

서오능에 자리 잡고서 다부진 눈매로 복을 향해 노력하는 제201전투 경찰대 “번영을 침범하는 붉은 무리의 야욕을 목숨을 걸고 무찌르겠다는 전투 경찰가의 내용처럼 김길동 대장을 비롯 한 ○○○명의 대원들은 우리의 부모 형제를 적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결심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이 결심을 뒷받침 하기위해서 일당백의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김길동 대장님은 서부지역 주민들의 체력향상과 후배양성을 위해 김일남 사범에게 1975. 9월 3일 이래 전대원의 태권도 훈련을 위촉하게 되었다.

피끓는 젊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정열이 있기에 국토방위, 대민사업, 치안확보등의 바른 일과 중에서도 매일 오전 9시~12시까지 세시간 동안 김일남 사범과 전대원이 하나가 되어 땀을 흘리며 수련을 해온지 어언 1년

이제는 40여명의 유단자가 생겨 났으며 나머지 전대원도 3급 이상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태권도 수련 시간 외에도 아침 6시 기상후 15km 구보로 역경을 이기는 정신력과 지칠줄 모르는 지구력을 길러 이제는 전 대원이 15km를 50분 내에 주파하게끔 되었다.

비록 年輪이 짧아 공식 태권도 대회에 출전할 기회는 없었지만 모든 대원의 가슴 속에는 “아무리 많은 적이라도 나혼자서 모두 무찌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차있으며 이는 피나는 태권도 훈련의 결과라 할 수있을 것이다.

훈련강화, 안보단결, 임전필승이라는 복무지침 아래 오늘도 새벽구보에 나서는 대원들의 우

렁찬 구령소리가 우리 조국의 밝은 내일을 약속해 주는 것 같아 보는 이의 마음을 한결 든든하게 해준다.



이른아침 연병장에 모여 기본동작을 수련하는 대원들



경기출전을 목표로 특별수련을하는 대원들

Children Demonstrate Taekwondo Feet in U.S. Trips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미국 순회

로스앤젤리스 등지에서 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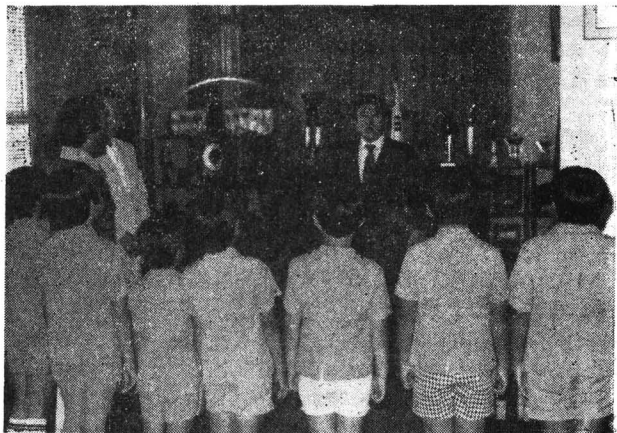
미독립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채로운 많은 행사가 열린 1976년의 미국내는 축제의 한해로 보였다.

그중에서도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한강체육관)은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하여 로스앤젤리스 및 샌프란시스코에서 태권도연무시범과 한국소개영화를 상영하여 200주년을 맞는 미국의 독립을 더욱 뜻깊게 하였다.

어린이 9명으로 구성된 이들 시범단은 76년 8월 10일 서울을 출발하여 9

월 10일 도착할때까지 한달간의 여정을 바쁜 시범으로 그곳에 미국인들은 물론 재미동포들에게 뜨거운 조국애를 심고 돌아왔다.

첫번째 시범을 로스앤젤리스에서 가졌는데 그곳 주미한국총영사를 비롯 많은 교포들을 위문하였으며 1,000여명 관중이 운집한 부이나 파웨스티탈에서는 손날격과 장애틈 뛰어넘어 격파 등 태권도의 진수를 마음껏 발휘 총주국 태권도의 위력을 여실히 과시하였다. 또한 한국축제의 날에서는 캘리포니아시장 및 미국의 유력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40분간의 걸친 태권도 시범은 이날의 축제를 절정에 다다르게 하였는데 진지한 관람태도와 시범이 끝난 격파 활동을



(김윤웅 회장에게 출국인사를 하는 시범 단원들)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들 시범단은 총 5회의 시범을 마친뒤 로스앤젤리스 F.B.I 및 디즈니랜드를 방문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시범이 있을때마다 손과 발을 만져보며 많은 관객들이 이들을 서로 민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대부분 우리 교민들에게 민박을 하였으며 허리우드에서 격파물을 쫓은 관객들은 싸인공세로 시범시간을 연장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한미체육관에서는 천선경기도 가져 한미 양국민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하는 계기도 마련하였고 내년에 이들 시범단의 묘기를 볼 수 있도록 초청을 하겠다고 약속받았으며 미주

중앙일보, 코리아타임즈, 미주동아, 미주한국 등의 매스콤에서도 이들의 방미순회시범과 한국인 필립 안의 만남도 잊을수 없는 추억이라고 흥관영시범단원은 이야기한다.

돌아오는 귀로에서는 하와이에 들러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도 우리 교포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기도 하였는데 서창우(1품)군의 8명 넘어 장에문격파의 즉석 묘기로 더욱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

1974년초 리틀트레저스의 첫 미국 나들이에 이어 두번째로 갖는 이번 시범은 개인적인 많은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태권도의 이



(한국의 날 기념식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시범 단원들)

미지를 새롭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태권도시범단의 해외파견은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장려하여 보다 조직적이며 차원높은 시범단파견에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F.I.B를 방문 기념 촬영 우단이 L.A에서 활약하는 김용길 사범)



대한태권도협회 전화번호 변경

76년 8월 20일 0시를 기해 대한태권도협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아울러 대한체육대회대표진화도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776-2374(직통)

777-6080~9(교환29, 65번)

태권도 오늘과 내일

◇◇◇ Tomorrow for Taekwondo ◇◇◇

- ◇...태권도의 비약적인 발전에 국내 200만 태권도인들은 물론 세계의 태권 도...◇
- ◇...인들과 각국에서 활약하는 많은 사범들과 함께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 ...◇
-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고 자만하는 여지가 없도록 우리는...◇
-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오늘의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기 위하여...◇
- ◇...각계 각층으로부터 태권도의 오늘과 내일의 전망을 연재로 들어본다.◇

해외 홍보 활동에 역점을 두어야

조선일보 체육부기자 朴 甲 哲

체육부기자로써 많은 다른 경기를 보아왔지만 태권도는 한 마디로 경이적인 발전만을 거듭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63년 전국체전에 처음으로 참가한 이래 13년이라는 짧은 시간의 흐름속에 세계화로 성장한 태권도의 국내적으로는 국민체력 향상과 정신적 단합을 이룰수 있는 국방체육으로서 성장하였고 국제적으로는 기량의 우월로 뿌리깊은 타 동양 무술을 제치고 성공적으로 보급되어 경기로서 정착하고 있는 것을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꼈다.

이러한 결과는 태권도인들의 단합된 힘의 결정이며 무도에서 경기로 전환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이 주효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로서의 세계화와 일몰성은 좀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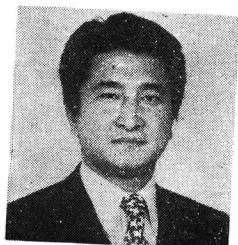
특히 해외에서의 각종 태권도 경기는 아직도 경기의 규정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범의 해외파견시 철저한 교육과 현지

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범들의 자질향상에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많은 분과별로 무도로서의 태권도가 단일화된 규정아래 승단및 경기운영은 많은 진전을 보고 있으나 기록경기가 아닌 개인투기종목으로서 관객이 외면하지 않는 경기로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와 관객이 가장 용이하게 경기를 관전하며 판정할 수 있는 경기규정의 개선의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제 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본 각국 선수들의 실력은 우리 한국 선수들의 실력과 거의 흡사하다. 다만, 이들이 경기규정과 운영에 있어 많은 경험을 쌓는다면 우수한 체력을 바탕으로 한 이들의 실력을 파소 평가할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중량급의 경우에는 선수층의 확보부터가 시급한 것이다.

그러나 75년 초 단을 구분한 어린이의 품(品)



의 제정은 태권도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적절한 조치이며 태권도가 국제경기연맹(G.A.I.F) 가입과 국제국민체육총목의 채택은 태권도인들에게 보다 큰 희망을 불어 넣어 줄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발전과정에서 등한시 할수 있는 적은 문제점들도 광범위하게 분석하여 타개해 나갈수 있는 예지와 日本의 세계유도연맹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모든 태권도인들의 노력에 기대해 본다.

무도에서 스포츠화 가장 큰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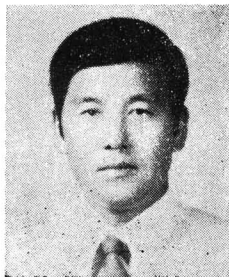
동양공업전문학교 교수 김 계 홍

태권도는 한국고래로 내래오는 민간스포츠로서 자발적인 학습으로 한국인의 자각을 높이고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통하여 민주적 성격을 도야(陶冶)하고 생활력을 높이며 인류평화에 이바지 할 강건한 신체와 의지력을 육성하는 교육활동인 것이다.

그러나 무도를 스포츠화 할수 없다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는 또다시 무도가 성행한다면 군국주의내지는 봉건주의가 잉태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는 자유민에게 정신적 압력을 가중하는 결과가 도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무도의 스포츠화는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대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며 봉건적 약점을 버리고 정신적 수양이라는 장점을 살려 현대인의 생활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수 있으며 국민스포츠로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둘이켜 보전제 과거의 무(武)는 현신의 德과 의리를 지키는 봉건적 윤리가 내포되어 있었으며 해방이전에는 황도정신(皇道精神)과 무사도(武士道) 정신이 강조되고 전투적 실천에 이용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배경아래서 과감히 탈퇴할 태권도는 봉건성을 제거하고 무도로서 나



아가 현대경기로서 발전 승화시켜 오늘날에는 국제스포츠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급진적인 발전의 배경은 국가의 시대적 요청과 경제인 여건

은 어느경기보다도 보급도가 용이하므로 자급학전교에서나 사회단체 이름으로 태권도를 교기(校技)로 또는 여가선용으로 수련을 하고 있다. 한거름 나아가 경기화의 가열로 전문 선수화의 양성도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권도는 자기 자신의 심신단련으로서 또는 경기의 참여로 더욱 활발히 보급되고 있으나 양적인 팽창과 아울러 질적인 향상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정신면에 보다 관심을 갖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예의, 공정, 열치는 武道에 있어서 휴머니즘과 스포츠맨십을 육성하는 현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일 것이다.

그러나 경기화된 태권도는 경기규정, 심판규정 등의 보완으로 관중을 외면하지 않는 스포츠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협 회 동 정

★ 6월 13일

제51회 전국 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 : 723명

★ 6월 19일

제70회 전국승단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 : 4단이상 355명

3단이하 465명

★ 7월 4일

제52회 전국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 : 455명

★ 7월 14일

가봉공화국 폴·공주국회의장과 국회의원 5명
은 오밤 주한가봉대사의 안배로 국기원을 방문
남대문국민학교 어린이 태권도시범단의 시범을
관람하고 기념품을 증정받았다.

시범이 끝나자 폴·공주국회의장은 시범단원
을 일일이 악수로 격려하며 레스토랑에서도 태권
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자기의 자

녀들도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 현재는 6급정도라
고 이야기하며 시범을 보여준 어린이들의 태권
도 묘기에 칭찬을 보냈다고 말했다.

★ 7 25~23일

제 2 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파견
한국대표선수최종선발전(본문참조)

★ 7월 25일~30일

제17기 2차지도자교육

장 소 : 전복실내체육관

참가자 : 70명

★ 7월30일~8월1일

제12기 3급심판강습회

장 소 : 전복경찰국상무관

참가인원 : 90명

★ 7월31일~8월1일

제 2 회 대한태권도협회회장기쟁탈
전국국민학교태권도단체대항태권도선수권대회
(경기상보참조)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369명

우 승 : 서울남대문국민학교

준 우 승 : 서울광희국민학교

3 위 : 서울미동국민학교

★ 8월8일

제53회 전국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 : 751명

★ 8월9일~14일

제17기 2 차지도자교육

장 소 : 부산구덕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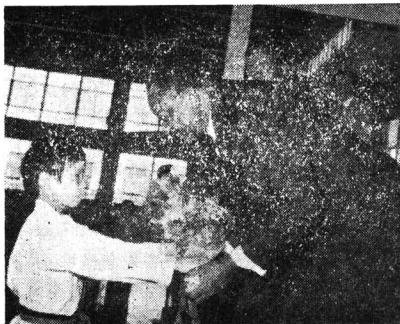
참가인원 : 73명

★ 8월14~16일

제12기 3급심판강습회

장 소 : 부산구덕체육관

참가인원 : 67명



(폴·공주국회의장이 태권도어린이 시범단원의 꽃
다발을 받고있다.)



(陳良光 자유중국 태권도협회 부회장이 국기원 원장실에서 김총재와 아시아대회에 대한 협의를 하고있다)

★ 8월14일

제71회 전국승단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 : 4단이상 353명

4단이하 486명

☆세계태권도 연맹실행위원이면 미국회의원인 존·엠·머피씨, 아들 존·엠·머피 2세가 국기원을 방문 한국대표성인시범단의 시범을 관람하고 김운용회장으로부터 기념품을 증정받았다.

☆자유중국태권도협회 陳良光부회장 국기원방문

제 2 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대비한 협의차

★ 8월22일~24일

제14기 3급심관강습회

장 소 : 전남광주

참가자 : 118명

☆제54회 전국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 : 617명

★ 9월 12일

제54회 전국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인원 : 617명

★ 9월28일

미국의 무술잡지인 블랙·벨트 편집기자인 폴

윌리엄 크롤씨가 국기원을 방문하여 남대문국민학교 어린이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연무시범을 관람하고 국기원 명예회원증을 김운용총재로부터 받았다.

★ 10월 7일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여동생이며 필리핀테니스협회회장인 마르코스바바여사가 자녀들과 함께 주한필리핀대사의 안내로 국기원을 방문하여 남대문국민학교 어린이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연무시범을 관람했다. 이 자리에서 김운용총재는 바바여사에게 명예단증을 수여했다.



(시범을 관람하고 있는 바바여사)



(폴 윌리엄·크롤씨가 시범단원을 격려하고 있다)

—KOREA TAEKWONDO ASSOCIATION NEWS—

***June 13, 1976**

The 51st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Applicants: 723

***June 19, 1976**

The 70th Dan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Applicants: For 4th Dan and higher(For
over 4th Dan: 355):355
for 1st Dan to 3rd Dan: 465

***July 4, 1976**

The 52nd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Applicants: 455

***July 4, 1976**

His Excellency Paul-Marie Gondjout, the speaker, National Assembly of Gabon and three other congressmen accompanied by the Gabonese Ambassador to Korea visited Kwkiwon, After the demonstration, the speaker praised the aeauty andiefficiency of Taekwondo, saying that helikes to have hisssons learn Taekwondo.

He said Taekwondo is also popular in Lesotho with help of Yoon Mogg, Korean instructor.

***July 31, 1976**

The 2nd Presidential Flag Primary School Taekwondo Championships

Place: Kukkiwon

Winner: Seoul Namdaemoon Primary School.

Runner-up: Seoul Kwanghi Primary School

3rd Place: Seoul Midong Primary School

***August 8, 1976**

The 53rd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Applicants: 751

***August 9, 1976**

The 17th Taekwondo Instructors Refresher Course

Place: Busan Gudeok Gymnasium

Applicants: 73

***August 14, 1976**

The 12th 3rd Class Referee Trining Course

Place: Busan Gudeok Gymnasium

Applicants: 67

***August 21, 1976**

The 71st Dan Promotion Test(over 4th Dan)

Place: Kukkiwon

Applicants: 353

***August 22, 1976**

The 71st Dan Promotion Test(for 1st to 3rd Dan)

Place: Kukkiwon

Applicants: 486

***July 22, 1976**

Finals for Selection of Korean National Team to be dispatched to the 2nd Aisan Taekwondo Championships at Kukkiwon.

Individual results of the tourney are as follows: Fin Weight: Yoon-Ki Choi(Chongju 1nd, High School)

Fly Weight: Jong-Ki Kim(Athletic High School)

Bantam Weight: Tai-Hwan Son(Navy)

Feather Weight: Moo-Chon Kim(Dongyang 1nd. Tech, School)

Light Weight: Jai-Chon Choi(Athletic High School)

Welter Weight: Young-Hap You(Army)

Middle Weight: Chul-Hwan Kim(Army)

Heavy Weight: Dock-Sou Kim(Army)

*August 30 to October 9, 1976

The 11 members of Korean Taekwondo national team to the 2nd Asian Championships slated for Oct. 16-17 in Melbourne underwent intensive training at Kukkiwon. Korea swept all the eight weight division to capture the title in the previous championships, which was held in Korea in 1974.

계간 태권도지 구독안내

날로 떨어가는 태권도는 세계를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권도지 애독자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 회를 거듭할수록 발행부수는 늘어나는 기쁜 소식을 애독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태권도지구독을 문의하시는 많은 애독자를 위하여 정기구독신청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접수하고 있으니 이용있으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 우편번호 100

서울 중구 무교동 19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지 구독 담당자앞

1년간 구독료 : 1,240원(송료포함)국내	
: 6,000원(")해외	

.....절.....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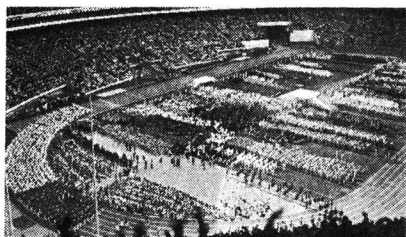
No. _____

주 소			우편번호	
성 명			구독구분	
※ 1. 정자로 정확히 명기할것. 2. 구독구분에는 1년간과 6개월을 정확히 구분하여 써 넣을 것. 3. 구독료는 소액환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낼것.				

President Kim at Montroul Olympic Games as an Korean Delezate

◇◇◇ 김운용총재 몬트리올 올림픽대회

한국회의 대표로 참석 ◇◇◇



(몬트리올 올림픽 개최식 전경)

김운용회장은 8월 1일부터 20일간 개최된 제 21회 올림픽대회에 한국회의 대표로 참석했다.

김회장은 걸라닌 I.O.C 위원장을 비롯 각국의 I.O.C 및 N.O.C 위원들과 폭넓은 대화는 물론 1978년에 개최될 월드게임의 각종 회의참석후 미국에 들려 샌프란시스코 지역사법들과 만나 미국태권도현황등을 상세히 보고받고 8월 30일 귀국했다.

President Kim Visits Namdaemun Primary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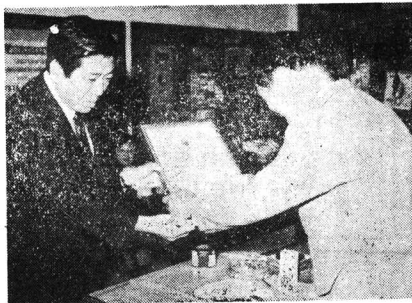
김회장 남대문국민학교 방문 감사장전달

7월9일 김운용회장은 업운규사무총장과 함께 서울남대문국민학교를 방문 그동안 각종 국제대회와 외국귀빈들에게 보여준 어린이 태권도시범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조종하교장에게 감사장을, 김봉기지도사법에게는 표창장과 태권도후원회의 金昌俊씨와 徐信愛씨에게 각각 감사장을 수여하고 시범단원대표인 장명삼군에게도 표창장과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날 김회장은 상장 수여후 『그동안 보여준 태권도시범은 국위선양에 있어 커다란 성과를 얻고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수련하여 훌륭한 태권도 시범을 보여줄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대문국민학교는 1970년 태권도부 창설이래로 각종국제대회에서 시범을 보여왔으며 리빈스 미체육회장, 6·25참전미의원단, 모하메드·알

리 방한등의 시범에서 절도있는 태권도의 동작과 격파등의 묘기로 절찬을 받은바있다.



(김운용회장의 감사장을 전달받는 조종하 남대문 국민학교장)

K.T.A Executive Han Sang Kuk Accredited to Norway as an Ambassador

본회 한상국이사 노르웨이대사로 부임



한상국이사

대한태권도협회 한상국이사는 주노르웨이 한국대사로 부임하여 북유럽에 한국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북괴대사관도 설치되어 있어 한층 어려움이 따르고있는데 이곳에도 태권도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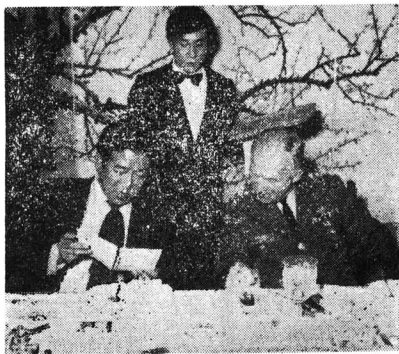
또한 본회이사를 역임한 윤석헌씨도 주불란서대사로 활약하며 이재설 인도네시아대사도 본회이사를 역임한바 있는데 현지에서 태권도보급에 활약하는 해외 사범들의 후원을 아끼지 않고있다고 전해왔다.

Returned From UNC Commander Gen. Stilwell

스티웰 미 8 군 사령관 이임

주한 미8군사령관 스티웰장군이 10일 20일 한국을 떠났다.

다변적이며 한국 국민을 이해할 줄 아는 스티웰사령관은 태권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재임기동안 태권도의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였는데 제 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 미참전의원단의 국기원방문시, 무하메드·알리의 방문때에도 참석하였으며 영빈관만찬에서는 김운용총재와 함께 태권도발전에 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여 의견을 나눈바도 있다. 스티웰장관의 후임에는 존. W. 베시 장군이 미8군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무하마드알리방한시영빈관오찬후김총재와함께)

Taekwondo Instructors Course Only in Kukkiwon

지도자교육 국기원에서만 실시

교육기간도 10일간으로 연장

기술심의회에서는 76년11월1일부터 지도자교육을 중앙(국기원)에서만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교육기간도 6일에서 10일간으로 연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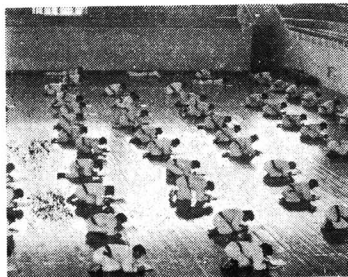
년간 4회씩 실시하는 지도자교육은 년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교육기간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태권도지도자 자질향상으로 중주국의 면모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기반을 이룰것이다.

Instructors Course Must for Higher Black Belts

고단자 (5단이상) 승단심사제도

지도자교육을 마쳐야

또한 5단이상 고단자의 응시에도 4단에서 지도자교육을 필하고 사범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승단심사에 응시할수있는데 시행일자는 76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필기시험을 보고있는 고단자승단심사장면)

New Certificate for Local Referee

새로워진 국내심판원 증명



(3급심판원자격증)

국내 심판원의 증명이 새로이 마련되어 앞으로의 각종 대회에서 이를 사용토록했다.

기존 심판원의 자격증으로는 매 대회때마다 심판원및 배심원의 표시를 별도로 부착했던것을 이번에 새로 고안된 심판원의 자격증은 사진과 함께 비닐로 포장올하여 경기장에서는 이를 부착하도록 되어있는데 1급은 청색, 2급은 초록색, 3급은 주홍색으로 되어있다.

Korean Referees in the 2nd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제 2 회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한국 4 명의 국제심판파견

'76년 10월 16일과 17일 호주 멜보른市에서 개최되는 제 2 회 아시아태권도 대회에 국제심판으로 정만순, 고철성, 이재옥, 장원석. 4명의 심판을 파견하였다.



Taekwondo Move at Panama Film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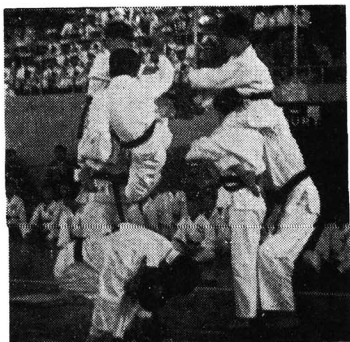
태권도 문화영화

파나마 영화제에 출품

태권도를 소재한 문화영화가 국립영화 제작소에서 천연색으로 35밀리 18분짜리로 제작되어 76년도 파나마영화제에 비극영화 부분에 출품되었다.

영화내용을 보면 태권도의 역사적 배경과 태권도지도자의 교육, 수련과정을 몸세와 것들여 성인시범단의 시범과 함께 다루어졌는데 시범장면을 스로비디오로 편집되어 있어 태권도의 묘기를 잘 나타내고 있는 특징이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점은 경기로서 태권도를 좀 더 인식시키지 못한점이다.



호주파견 한국대표선수단에

태권도 도복기증.....상무사

제 2 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한국대표선수단에게 도복전문메이가인 상무사(대표 정재원)에서 태권도복 9착을 기증했다.

韓國의 설을 世界의 품안에



유럽 태권도연맹기술위원장
오스트리아태권도협회수석사범
李 京 明

I) 태권도는 이제 세계화의 기초작업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태권도를 수련하는 횡간기 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억센 파도처럼 물결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간 한국의 태권도는 WTF(세계태권도연맹)의 산하단체로 지역연맹으로서는 첫 번째로 지난 5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Barcelona)에서 제 1회 구라파태권도대회 개막전에 ETU(구라파태권도연맹)이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산발적인 보급에의 씨앗에서 연맹체의 꽃으로 피어나기 까지에는 숏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나의 조직체가 구성되기에는 많은 전통을 겪게 마련이다.

이제 ETU가 탄생함으로써 구라파지역의 태권도는 한층 보급도가 높아질 것이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태권도가 현대경기종목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해외사범의 자세는 어떠한가. 그 조직사회에서 함께 노력하고 활동하고 참여할수 있는 자질과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것일까.

그동안 산발적으로 사범들 간에 해아릴 수 있는 친신대회를 가졌었고 또 그 대회 때마다 사범들은 “뭉쳐야” 한다고 야단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하였고 모임위의 후유증은 대단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는가 하면 누구는 어떻게 또 다른 누구는 신통

찮다 하는 등의 백안시하는 후문이 꼬리를 물고 쫓아 다녔다. 통히 이해가 가지않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그런 풍토에서는 건전한 단결과 발전이란 기대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라라.

해서는 아니지만 오랜 침묵으로 나는 일관해 왔다.

구라파 지역에서만도 국위선양이라는 미명아래 오늘날도 쉽없이 노력하는 사범들이 적어도 배가 알기에는 백여명이 넘는다.

구라파에 태권도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는데 십여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이제 그 오랜 세월이 흐른지금 어찌면 우리 한인 사범들의 필요성마저 상신해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국가 단위별로 협회가 구성되고 협회를 이끄는 임원들은 한인사범의 제자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국 협회는 한인사범을 배척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일까?

정말 어처구니없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다.

II) 그것은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국제사범으로서의 자질부족 때문이다. 지도자로서의 자질향상이 앞서야겠다. 기술과 이론과 인격, 그리고 지도력의 결집에서 오는 빈혈현상으로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의 설 땅을 잃고 있는 과도기에서 해매고 있다.

지난 5월 「바르세로나」에서 가졌던 제 1회 구라파선수권대회시에 일어났던 실례를 들여보자 K라는 사범은 심판의 불공정에 자기 선수가 패했다고 한낮에 술에 만취되어 심판을 죽인다고 소동을 벌였었고, S 사범은 자기 제자가 출전자격 실격으로 중도하차 당하자 격분하여 세계태권도연맹에서 탈퇴한다는 망언을 했었다. 그런가 하면 또 P라는 사범은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그러한 저질심판이 주도하는 경기에는 이상 더 시합을 할 수 없다면서 결코자는 자국 선수를 기권까지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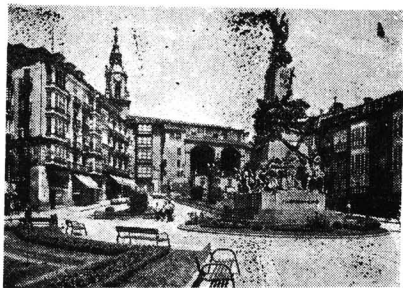
경기를 심판하는 사람이나 선수의 코치를 맡은 사람도 우리들 자신들이었다.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를 빚었던 것은 관객들에게 불신감을 주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범들 스스로가 국제사범으로서의 자질 부족에서 빚어진 결과이었다. 누구는 어떻고 또 다른 어느 사범이 어땠다는것으로 귀짓기에 앞서 우리 모두는 되려 침묵을지킴이 좋겠다. 자숙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인화단결하는 정신자세가 없이는건전한 태권도의 세계화란 기대하기 어려우며, 미구에 중주국으로서의 태권도의 주도권을 상실할지도 모를 결과를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게 될것이라는 가정도 실정해 볼지하다.

궁지를 갖고 의욕에 찬 연구하는 자세로 끈질긴 인내로 우리 자신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야겠고 우리의 위치를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Ⅲ) 사범으로 해외에 나간지가 벌써 물이 흐르든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그 세월의 흐름 속에 그래도 연 1회 고국을 방문하게 된 셈이었다. 나를 만나는이 마다 어떤이는 부러워하는 눈치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의아해하는 마음이다. 그 재정적인 낭비가 못마땅해하는 기우이기도 했을거다.

그렇다고 내가 자주 드나들 수 있듯 재력과여유가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니다. 나에게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고국의 산하에 두고 온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이 마음 놓이지 아니하



고, 다정했던 여러 벗님네와의 대화가 그리울고 날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조국의 모습이 보고 싶기도 하고, 씩씩하게 수련하는 2백만 태권도인구의 안부가 궁금스럽기도 하지만 더한 이유는 중주국의 기술발전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는 정보산업시대라 일컫는다.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 현대경기종목으로 성장하는 태권도 이라고 예의일 수는 없다.

잠시 귀국하여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지방으로 이리저리 분망히 수소문하여 다니며 수련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하나 하나 머리속에 메모하고, 훌륭한 국내 사범들과 만나 발전하는 기술을 배우고 있다. 또한 일선 체육교사들과도 만나 체육학적 이론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Ⅳ) 나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나에게 체육학적인 이론이 결핍되어 있다. 나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범들도 체육을 전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학창시절에 심신단련이라는 목적아래 유한파적(有限破寂)적으로 태권도를 배웠다. 그것이 어찌다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와 그 기원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기(氣)를 쓰고 그리운 부모형제와 벗, 그리고 아름다운 조국을 두고 떠나는 것이 다.

피부와 언어가, 풍습, 그리고 문화와 환경이 전혀 다른 이방지대에서 기를 쓰고 “하나, 둘” “아래타기, 앞차기” “얕” 하는 구령과 기합 그리고 땀과 노력으로 일관해 왔다. 돈도 벌며 여

행하는 기쁨도 누리고 또 나아가 보이지 아니한 인간사절로써 국위선양의 일익에 뿌듯한 보람을 때로는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했던 오늘날까지의 해외태권도 풍토가 이제는 국가협회가 창설되고 세계연맹과 지역연맹의 결성, GAIF 가입 월드게임의 티켓, CISM의 태권도 종목 채택으로 국제적 확산과 눈부시게 발전하는 풍토로 변모해 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범들은 구태의연한 지도방법으로부터 탈피와 자질향상이 시급하고, 태권도의 조직사회에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지위향상이 화급한 것이다. 그리고 사범들 간의 총화단결로도 임체를 갖고, 이것을 통해 기술면의 개발, 인격면의 도야, 지도면의 영도력 배양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V) 국내협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연간사업계획으로써 사범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자교육, 심판의 자격을 부여하는 심판강습회가 실시되고있다. 계속해서 각종대회가 개최되고 있어 오랫동안 고국을 방문 못한 해외사범들은 가능하면 고국을 방문하여 그리운 부모형제, 벗을 만나고나아가 지도자교육, 심판강습회에 참가, 이수하고 각종대회에 참관하여 새로운 기술을 익힘이 좋겠다.

파란 눈의 태권도수련생들이 관광을 겸해 중국주에서 기술을 익히려고 오늘도 계속해서 찾

아들고 있으며, 국기원에서 담홀리며 진지하게 수련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해외사범의 한 사람으로써 뭔가 가슴을 저미는 충동을 금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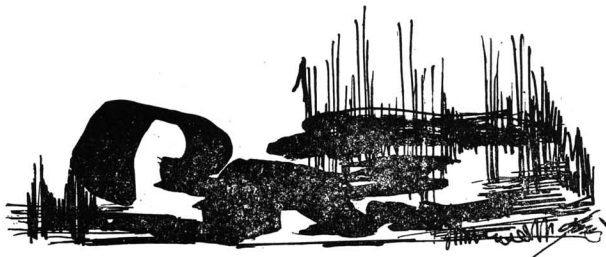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근시안적인 생활범주에서 탈피해야겠다. 날로 발전해 가는 태권도의 세계화의 기초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일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운영방침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VI) 5천년 역사의 태권도가 무예로써 뿐만이 아니라 현대경기종목으로 발전해 왔다. 지도자로서의 우리는 태권도를 스포츠로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도 부심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무예로 정신적 바탕의 기저로 한국의 고유한 얼인 예의 염치 인내, 극기심을 강하게 심어야 한다.

우리는 경기에 있어 유능한 코치이거나 선수를 훈련시키는 트레이너에 앞서 사범이다. 항상 원만한 인품을 갖추고 창의적인 지도에는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들 스스로가 지도자으로써 자질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겠지만 또한그 조직사회에서 기술적인 운영면에 주도권을 장악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태권도 종주국의 강한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불타는 사명감으로 「한국의 얼을 세계의 품안에 뿌리깊히 심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 「스스로 노력하는 사범」이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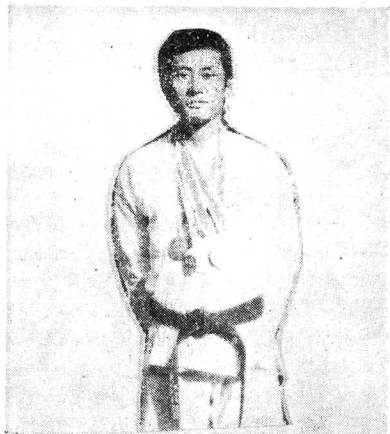


◆ 나의 수련기 ◆ My training experience ◆

하였으나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게 되었다. 그것은 마음과 몸이 「언바라스」가 되어 도저히 시합운영이 안되었다. 1차전에서 「비김」으로 계체패를 당하고 말았으니 참으로 『증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를 실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결국 선수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고 이제까지의 피나는 노력과 나를 위하여 고생하시며 지도하여 주신 스승에게 면목이 없게 될뿐만 아니라 태권도의 낙오자가 될것이 불을 보는 것 같았다. 이때 지도교사이신 노 상석 선생님의 격려에 힘입어 그럴 수는 없다. 이어서는 안된다고 스스로 다짐하여 지도자반에서 공부를 하고 단사님들은 잠을 잘때 야밤에 혼자 운동장에서 맹훈련을 하기 시작하였다. 눈물과 땀이런 맹연습이었다. 이러기를 한달 계속하였다. 이는 아세아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 선발에 대비하기 위하여서였다. 제1차 선발전에 출전한결과 시험도중 부상으로 기권을 하였다. 참으로 불운의 계속이었다. 그러나 절망은 없다라고 외쳐 보았지만 2차 선발전은 2주일 밖에는 없었다. 「메디칼 센터」에서 전문의의 진찰과 치료를 받아 다행이 상처는 1주일만에 아물었으나 뼈의 상처는 완치가 되지 않아 「기브스」는 풀지도 못한채 다시 혼자 연습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몸의 상태를 가지고 제2차 선발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라이트」급에 출전한 선수가 38명 「토너먼트」로 5회전을 싸워야 하였다. 오직 필승의 신념과 투지를 가지고 대전에 임하여 피땀이런 맹훈련의 덕으로 제2차 선발전에 선발이 되었으나 최종전의 격정이 앞섰다. 그러나 하면 된다는 신념과 의지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부상한 상처의 치료와 아울러 면면히 떠오르는 스승님들의 말 없는 격려로 힘입어 연습에 열중하였다 대명통해사가정태대회에 코배를 마신 이후 60일 동안은 내 일생에 아마 앞으로도 이런 피와 땀과 눈물이런 연습은 없을 것이다.

최종선발전의 날은 왔다. 긴장과 절박감 흥분감이 고조되어 안정을 찾기가 힘이 들었다. 이것은 고 3으로 진학하면서 부터 수개월 동안 운동을 일시 중단하였던 것 때문이기도 하다.



획득한 각종 메달을 걸고 기념촬영

그동안 60일간의 노력으로 제「페이스」를 찾았다고는 하나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다. 또한 어려서부터 나를 지도하여 주신 분께 보답하는 길은 오직 이 시험에 우승하는 길 밖에 없다는 책임감마저 나를 지배하였기 때문이었다.

2일간의 시험 성적은 2승 1무로 우승이 확정되었고 제2회 아세아태권도대회 파견 한국대표선수의 일원으로 선발이 되었다. 이것은 오로지나를 길러주신 스승과 나를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사범님들의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이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나는 이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재천이가 있습니다」 하고 감사의 눈물로 보답하였을 뿐이다.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반이고 대학에 진학할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아세아대회에 한국대표선수로 호주의 수도 「멜보른」에 원정하여 기필코 우승하여야 할 책임마저 지니고 있다.

남보다도 두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결코 자만하지 않고 배우는 입장에서 또다시 피나는 노력을 하여야 할것을 자각하며 계속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바입니다.

Lessons of the Montreal Olympics

몬트리올 올림픽의 교훈

李 載 福

제21회몬트리올 올림픽대회는 갖가지 많은 화제를 남기고 폐막되었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갖게한것은 루마니아의 체조선수 코마네치양의 화려한 전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한다는 것을 느꼈다.

약관 14세의 나이로 대회기간중에 활약은 각국의 보도진들에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때 코마네치선수는 기자회견에서 7살때부터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특수체육 학교생활을 한것으로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자 대회후 각국의 언론은 많은 공문이 있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간의 순수성을 망각한 잔혹행위라고 혹평하는가하면 금메달을 획득키 위한 인간기계로 만들 용의는 없다고 발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자위에 불과하며 각국의 스포츠관계자에게는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되었고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체육성신설을 논의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스포츠의 백년대계를 위해 체육전문학교의 설립도 추진중이라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태권도 현황을 보자 태권도종주국으로서 태권도인들의 희망은 올림픽의 광장에서 우리의구령으로 금메달을 획득해 보겠다는 일념뿐 일것이다.

그러나 태권도의 올림픽가입진망을 80년 모스크바대회후 서방세계에서 개최될때 가입 진망을 본다면 실제 경기후 과연 종주국다운 경기결과를 가져올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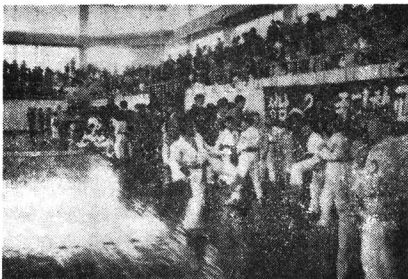
세계태권도연맹결성이후 4회의 결친 국제대매 결과는 전제급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으나 각국의 실력향상은 항상 종주국을 위협하는 불안한 요소로 지적되어 오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각국의 기술향상과 비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많은 초등부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왜 이들을 위한 대회가 많지 않으며 국민학교교과정에 5,6학년에만 채택되었다고 선수의 참가를 국한시키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태권도를 7~8세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이때부터 2년후에는 1품정도의 실력을 갖추어 자기의 실력을 테스트해 보려는 동심과 자녀의 수련실력을 보고싶어하는 부모들의 마음에 비추어 이들을 위한 대회는 년간 2회정도의 전국규모 대회가 개최되어 비대한 참가선수로 대회진행의 무리, 입상까지를 위한 무리한 경기로 많은 동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길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 국민학교태권도연맹이나 협회에서 보다 많은 대회를 개최 10여년후 이들이 한국 태권도를 대표하여 국제스포츠사회에서 우수한기량으로 활약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몬트리올올림픽에서의 코마네치수의 활약을 이들과 비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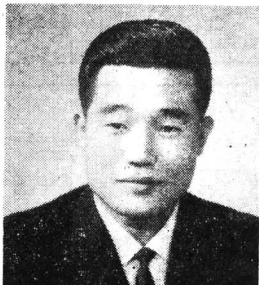
태순양

최경철



위력측정기 연구

SPORTS DYNAMOMETER



◇◇金 一 相◇◇

본 작품(위력측정기)은 1975년 8월 25일 경기도 주최 제 2 회 과학전시회 산업기술부분(물리부)에 인천공업고등학교 교사 견승의, 방제선 명의로 출품하여 특선을 하였고 1975년 10월 17일 광복 30주년 전국과학전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본 측정기를 개발함에 있어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정 연태, 신 명희 교수님 고려대학교이공대학 김 정홍 교수님께 감사 드리며 특히 하 나봉 인스트러먼트 대표이신 채 명준 이학박사님의 지도감수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鍛鍊의 필요성
2. 概 要
4. 特徵 및 構造
3. 規 格
5. 動 作

6. 회로(BLOCK DIAGRAM) 및 각부파형도
7. 取扱方法
8. 其他用途
9. TARGET 상세도 및 Counter部 외형 설명
10. 충돌시간에 의한 충격의 계산치(자유낙하)

1) 鍛鍊의 필요성

선천적으로 위력을 지니고 있어도 이를 계속적으로 상대방에게傳達하려면 단련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단련을 통하여만이 速度, 正確度(方向) 힘의 集中을 기르므로써 큰 위력을 날게 된다.

근래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력시험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인지 극소수(特定人)만이 단련을 하고 대부분이 게을리하고 있어 사실상 위력 면에서 輕視 당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 단련을 통하여 위력을 길러 태권도인은 누구나 一擊必殺의 莫強한 힘을 지녔음을 재인식시켜야 할 때가 아닌가 思料됩니다.

2) 概 要

Sports Dynamometer는 충격력을 검출하는 Target과 Target으로 부터 검출되어 나온 전기적 신호를 數値로 표시하는 Digital Counter 등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위력측정기로서 punch의 힘 박치기의 힘, 발차기의 힘 등을 pound 또는 kg 중으로 직접 숫자화 하여 측정하는 매우 편리한 위력측정기이다.

3) 特徵 및 構造

1. 충격량을 직접 숫자화(digital 눈금表示)시켜 읽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속정확하다.
2. 휴대 운반이 편리하며 Target을 어떠한 형태로 설치하여도 사용이 가능하다.
3. Target에 加하는 靜的外力(荷重(V-O)의 湯室은 불가능하고 動的外力(V+O) 即 속도를 갖인 물체의 운동을 遮斷하면 그 위력을 湯室할 수 있다.
4. 저울과는 달리 하나의 機器로 속도를 갖인 압력에서 나오는 힘 그대로를 表示하는 即 表示能力의 幅(범위)이 넓은 기기이다.
5. 電子式 counter부와 機械式 Target부로 분리되어 견고하고 고장률이 극히 적다.
6. 타격시 촉감이 좋고 안전하다.
7. AC, DC 겸용이 가능하다.
8. Kgw과 lb의 겸용이 가능하다.

4) 規 格

1. Target 部

方 式 油壓變壓方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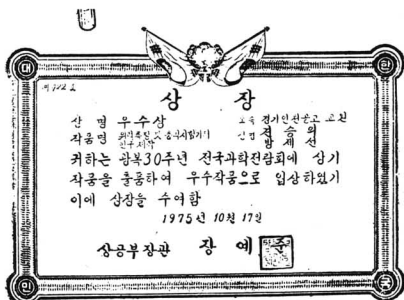
變 壓 比 723:1

使用油類 유압류

측정범위 15kg중~1,500kg중

출력임피던스 10KΩ

타격유요면적 中心部 260mm 원내면



(광복 30주년 전국과학전람회 에서
우수상을 수상 상공부장관상을 수상)

크기및중량 4×29×33cm

2. Counter 部

방 식 순간 A-D변환 적산방식

최고표시수 999kg중 또는 999lb

사용반도체수 Transister 21個

다이오드 14個

정전압다이오드(채나) 2個

직접회로(IC) 6個

써미스타 2個

숫자관(LED) 3 조

전 원 AC 100V

소비전력 50W

5) 動 作

1. Target 受力板에 충격을 가하면 Target 내부의 유압류에 의해 베로스 (7)이 팽창(신장)되면서 감응코일(ㄷ)이 자석 안에서 움직인다 이때 감응코일에는 受力板에 加한 충격에 比例되는 전압의 파형이 나타나며 이를 받아 드린 counter部에서는 전류증폭을 한다음 A-D변환 회로에 가하여 전압 크기에 따라 펄스(Pulse) 간격이 달라지는 펄스들을 발생시켜 Gate 회로를 거쳐 Digital counter에 넣어 주므로써 counter된다.

2. 한편 Target에서 생긴 파형증 불필요한 후 미파형(Target이 충격을 받은 후에도 약간 진동

함. 그림-5의 A.G.H.I.에서 사선을 제외한 파형)이 Count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Target로부터의 신호를 전압 증폭하여 슈틸트리거 회로에서 파형을 정형한 다음 (-)트리거 신호를 쌍안정회로(아)에 가하여 Gate(락)를 차단시키므로서 충격과 다음에 나오는 불필요파를 제어한다.

7) 취급방법

1. Power Sw (A)를 ON 위치로 누르고 RESET BUTTON (B)를 누르면 STAND By LAMP (C)가 켜지고 COUNTER (D)의 숫자는 000가 된다.

2. 다음 TARGET에 충격을 가하면 COUNTER에 숫자가 COUNTER되며 STAND By LAMP (C)는 꺼진다. STAND By LAMP (C)가 꺼진 다음에는 TARGET에 아무리 충격을 가해도 COUNT는 되지 않는다.

3. 다음 다시 충격력을 測定할 때는 RESET BUTTON을 눌러 STAND By LAMP (C)가 꺼진 다음 使用한다.

8) 기타용도

1. 直接충격을 가하는 태권도 권투의 위력 외에도 TARGET를 임의로 SETTING하여 각종球技의 強飛速球의 위력 即 Shooting 強度, 速度 正確度(方向)을 기를 수 있으며

2. 선전적 서질을 가진 유망 신인선수 발굴을 위하여 TESTER로도 使用할 수 있다.

3. 體育部面 外에도 HAMMERING의 위력 즉 못 혹은 pile 자체가 받는 힘은 물론 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을 TARGET으로 차단시키면 곧 거기서 나오는 power를 알아낼 수 있으므로 용도가 광범위한 다목적 측정기로 사용될 수 있다.

10) 충돌시간에 의한 충격력 계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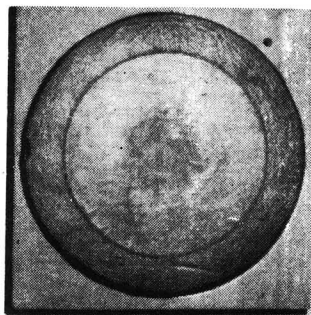
自由落下試驗(鐵球)

낙중중량	h cm	t (m Sec)	...	$F = \frac{m\sqrt{2gh}}{t} (N) = \frac{m}{t} \sqrt{\frac{2h}{g}} (kg중)$
(kg)	20	6.1 6.2 6.6 6.3 6.1 6.6 6.3 6.1	6.28	34 (kg중)
	30	6.7 6.2 6.0 6.0 6.3 6.2 6.0 6.0	6.13	43 "
	40	6.6 6.6 6.7 6.2 6.4 6.5 6.4 6.1	6.21	49 "
	50	6.7 6.4 6.5 6.7 6.7 6.7 6.3 6.3	6.54	53
	60	6.7 6.3 6.3 6.0 6.4 6.2 6.3 6.3	6.31	59
	80	6.1 6.3 6.1 6.3 6.1 6.0 6.2 6.1	.	71
	100	5.8 6.1 6.0 5.9 6.0 5.8 5.9 5.9	5.92	82
	120	5.9 5.6 5.8 6.1 5.8 5.9 5.8 5.8	5.8	91
	150	5.9 5.4 5.5 5.4 5.3 5.3 5.6 5.5	5.5	108
	180	5.2 5.2 5.3 5.2	5.2	125
1.07	20	7.0 6.9 7.1 7.3 7.1 7.0 7.1 7.1	7.1	53
	30	7.3 7.5 7.3 7.4 7.2 7.3 7.3 7.5	7.2	64
	40	7.3 7.3 7.2 7.1 7.3 7.2 7.2 7.2	7.2	73
	50	7.0 7.1 7.1 7.0 7.1 7.0 7.1 6.9	7.0	84
	60	7.0 7.0 7.0 6.8 6.7 6.7 6.8 6.9	6.9	94
	80	6.6 6.3 6.5 6.5 6.3 6.5 6.3 6.4	6.4	117
1.85	20	7.0 6.9 7.1 7.3 7.1 7.0 7.1 7.1	7.1	53
	30	7.3 7.5 7.3 7.4 7.2 7.3 7.3 7.5	7.2	64
	40	7.3 7.3 7.2 7.1 7.3 7.2 7.2 7.2	7.2	73
	50	7.0 7.1 7.1 7.0 7.1 7.0 7.1 6.9	7.0	84
	60	7.0 7.0 7.0 6.8 6.7 6.7 6.8 6.9	6.9	94
	80	6.6 6.3 6.5 6.5 6.3 6.5 6.3 6.4	6.4	117

4.2	100	6.0 6.1 6.2 5.9 6.1 6.2 6.1 6.1	6.1	137
	120	5.6 5.8 5.7 5.8 5.6 5.8 5.8 5.7	5.7	161
	150	5.4 5.3 5.4 5.4	5.4	190
	180	1.2	5.2	216
	20	8.9 8.7 8.9 8.7 8.7 8.8 8.6 8.7	8.6	96
	40	8.3 8.1 8.2 8.0 8.0 8.1 8.3 8.1	8.1	148
	60	7.3 7.1 7.2 7.2	7.2	204
	80	6.5 6.2 6.0 6.2	6.2	274
	120	5.8	1.8	358
	20	7.5 7.9 8.1 8.2 8.2 8.6	8.1	135
5.42	40	7.8 8.1 8.3 8.5 8.3 8.5	8.2	189
	60	7.1 7.0	7.0	271



(측정기)



(Target)

섬마을에 의약품및 태권도지 전달

1976년 10월 15일 경기도 강화군 삼산섬에 의약품 및 대형태극기 태권도지 200부를 기증 주민들을 기쁘게 하였다.

대한태권도 협회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책과 벽지태권도 발전을 위해 김운용회장의 뜻으로

협회경리담당 이창목씨가 전달하고 태권도를 통한 반공정신 고취 및 의료시설이 부족한 벽지마을에 의약품을 전달하여 이곳 주민들에게 호뜻한 인상을 주었다.

Target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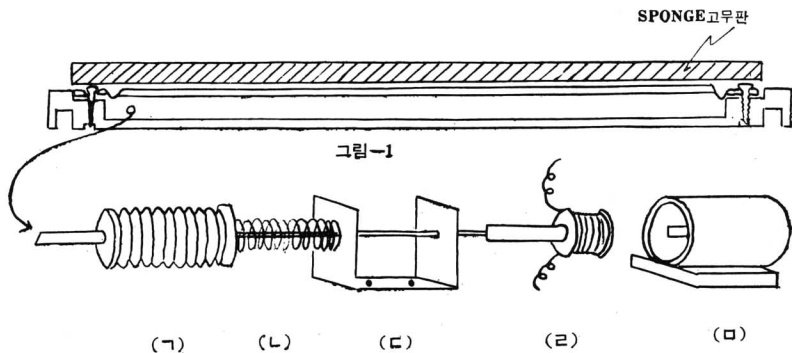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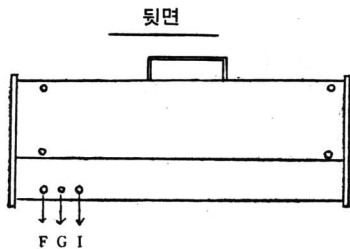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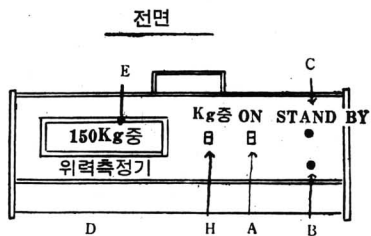


그림-2

COUNTER부



- A: POWER SW
- B: RESET BUTTON
- C: STAND BY LAMP
- D: COUNTER
- E: DIMENSLOP(kg중 lb)
- F: AC CORD
- G: FUSE
- H: kg중 lbs Selector
- I: PLUG in JACK

7. 전체 회로의 BLOCK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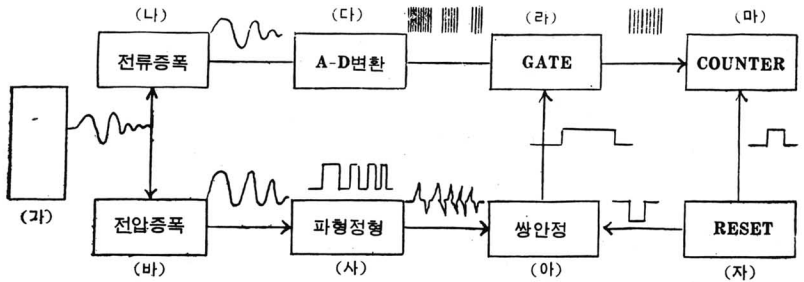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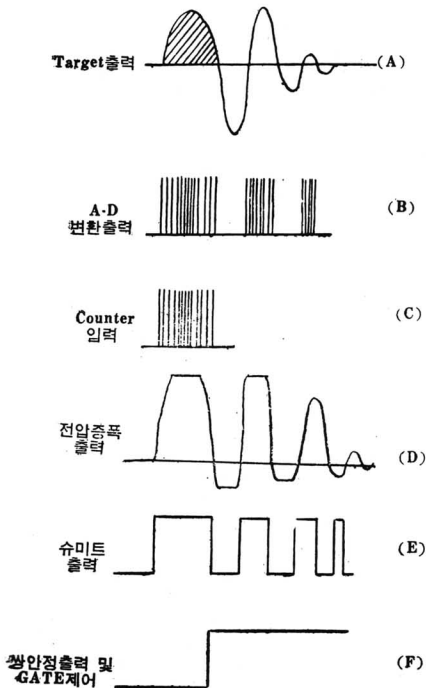


그림-4

각부파형



Target표면 고무두께에 따른 Target出力파형
(1.05kg 鐵球 60c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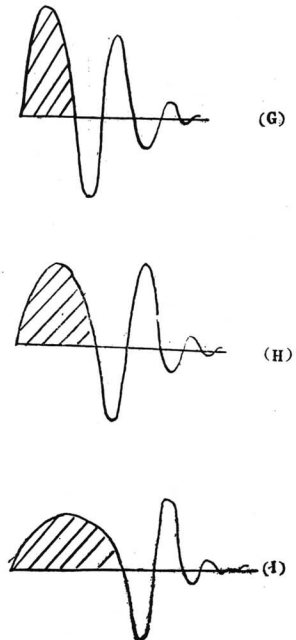


그림-5

국기원 승품심사 합격자 명단

Promotion test for Poom at Kukkiw
on list of those passed

제51회 승품심사 합격자 (76. 6. 13) (The Poom Promotion test)

1 품(First Poom)

박창규	박정훈	김재호	김서구	황 경	이현주	홍성욱	박경원	조용상	김영일
김종훈	안태신	최영정	서재창	채교성	김정수	장진영	노상윤	노유변	조광환
김남행	강인돈	임현수	최동준	이병규	Paul P. Baltosts	김병모	이은희	김경배	
이현구	정재훈	이명정	최병진	조항규	김영강	최청욱	이길호	임승준	정형수
최병학	라영환	김용수	한용운	이현석	김한철	김지걸	최동석	원태희	강상용
이원종	홍정오	송기왕	서준석	김영진	김한수	황선태	양승원	김병기	문준오
김윤환	안상현	이상훈	오철근	정현무	차용화	안종현	윤진구	유진욱	김준희
노광식	배국진	전재동	신영석	김성호	예영민	백인기	김준동	배윤철	최우석
정태환	정태영	최상진	유병희	박홍식	홍창기	김현구	김동균	윤장호	홍진기
성성현	이석우	이정석	백경호	신정우	이상학	조종석	김도균	김상훈	최창혁
김돈식	김용태	성재용	강태성	최성용	김성민	권홍돈	김영화	김태훈	金映昊
구진희	한진우	조태용	박 응	조석현	이강문	박진표	노구복	배한상	박창기
김창수	김경태	김 태	김종훈	유진욱	유근수	김진희	김재훈	전병진	강한승
김동진	이정구	김석준	이의선	은종학	김태형	박성수	김중환	오정균	양옥승
김명환	이운선	신장원	이광재	남희현	원현영	양허승	서석범	양주승	임상철
권석진	장동식	김 경	장재훈	신연희	정재홍	이강혁	김동수	김지훈	박재용
박희신	박경한	허병무	정원서	신혜균	이기국	유준선	유현석	신병준	안재성
김현웅	신영균	이왕준	박경호	이세현	황광훈	이종용	이강호	한성호	이장보
강허준	홍진표	이준영	전용일	변용훈	안준철	서범구	김동욱	김태현	정동현
김晶娥	최정식	이상민	한성오	이기호	김홍규	이승훈	최준환	황정환	김한성
백승기	이승주	김득용	안인섭	김상현	변희성	임규식	서태삼	홍성원	서종남
강우현	김우정	홍준표	장용석	문정란	조수걸	강익윤	김창기	하승운	이홍무
이상완	권병택	한창남	오동호	이정수	정종민	정창균	임영서	소병석	김인희
이윤일	나매로	윤효섭	이창호	최정일	최찬진	이화술	안이훈	신동훈	조남욱
정대영	이우진	김경일	하영도	이태진	김철희	김범세	이계성	이한상	김성재
박동진	신준섭	김혜숙	금방용	김범수	배석무	황광준	홍준기	이주린	정일영
					정영학	김승현	김경현	김근욱	박성재
					정용선	홍석현	정창용	김상진	유재호
					이임배	김향구	배두영	김성남	殷廷昊

김세훈 김용식 정영길 한원일 박태승
이준수 임정옥 한동승 이승환 권대근
태수명 박찬우 박재홍 김영길 이동희
이상병 김영수 윤필중 강창근 성경훈
강창환 오용석 김경태 김원희 박정용
정 현 정환동 이재문 강승휘 윤재원
James stephen moare 김도윤 김경수
조병곤 최홍순 김용운 이정희 이종화
강한승 황준현 정재욱 권돈일 문성호
허계범 전해룡 강태광 최좌하 한대원
김인철 권한옥 김태균 권모라나 나정열
황영철 김경호 정홍배 복형민 양재석
한국녕 남찬우 장승일 김정일 박성준
이용권 崔泰殿 김수현 김태원 이호준
김덕환 임창득 이병훈 김희준 이영관
이지열 신태광 김재승 박병호 박원서
서광석 엄태옥 박상림 권대종 최덕진
박찬수 박진수 김광수 이성민 이노우
김진수 최근식 박성근 김길영 송원섭
서 완 홍성재 김연만 박종남 김연익
오태현 이병철 金 泳 신선경 민장식
정재호 金基敦 김태진 권신태 신정환
김영택 오재진 김형모 박진성 박지훈
권용완 안성준 김윤석 정영학 박주상
김석동 황의성 최윤호 고동국 차상현
유득희 신영주 김우경 주진후 양창주
김원기 채용태 최재판 최현호 임경수
허철수 편무길 박진상 김무종 한규설
남기만 유재성 오종환 이종래 유수환
박남기 정은주 이재정 임동식 장종근
김용균 박강호 백두봉 이정원 유성기
이재우 이결래 유성일 김중식 김상용
김종상 정찬욱 김영관 정구완 이진원
권돈필 조선무 이상길 이장근 조승현
권홍조 염계명 윤계환 황장희 金沒喫
연규만 임규상 서봉석 김봉중 박준수
임영수 권오연 김형기 이정목 최영훈
이홍열 강원석 최종성 서기원 정규철
임한식 이기현 임미경 정기석 남궁석
최정환 최호식 이성호 이충우 홍강식

오중문 김태희 신동성 유진철 송영식
박기정 박은철 최형권 권의준 백효석
李 沅 심선식 김승겸 이상재 이근희
박찬기 이현철 이달원 김정훈 정태진
임순재 이상열 구재만 이종섭 김인호
박찬정 박상진 성대현 홍 구 김지훈
이상준 김용근 이재훈 金鍾郁 최광목
함문섭 김우섭 박범구 서민석 유성종
고태원 하용수 문기혁 석상호 최성혁
정승욱 윤태중 홍정표 조경민 金璽哲
Hall Glean, missy kastle 김석규 한종현
Stene Denah 박우주 Vistor Hardy
문철영 이진용 맹승환 김민환 박석우
金玟玄 엄재호 송남현 이승훈 김현기
최정용 유근식 송영선 표 석 유종철
김 정 장찬수 강호걸 최영호 허 진
김형일 신윤석 김기태 김정훈 이정호
임종훈 이명호 황신욱 이규준 박용규
최진섭 임연승 한창현 윤병원 김학윤
배해출 하재홍

2 품(Second Poom)

임남환 유재권 김삼식 박성용 오성진
서동원 최락희 김준현 한준규 김영일
이주한 김종균 장준수 윤상원 박정준
최 민 이미해 김종대 이상호 김인봉
최대호 이성우 권양섭 김이욱 김종혁
방종민 김현기 김인호 장두혁 최광종
이성욱 강윤기 이병준 문원재 오호남
이주섭 송성호 지정석 남판우 이승준
박희영 백주식 조경상 정희권 홍지유
이종익 김동춘 김민영 석대창 이광주
박용범 장홍석 신경목 박정욱 윤주식
추사한 백한승 민병선 심상구 김기환
성일홍 한재철 이경식 심상열 양우식
이형환 박신정 이정우 김재욱 광경민
심상운 양병구 문정환 김상범 김영수
김우진 강승훈 김현경 소성훈 정호원
정용수 이종갑 유진우 이경수 홍사길

옹주환 최휘대 도창성 남창현 문명숙
전종열 이현구 서준모 이민수 김남훈
김상우 이주원

3 품(Third Poom)

한진홍 인해진 최이현 최태수 김호진
김형균 박종수

제52회 승품심사 합격자 (76. 7. 4) (The 52nd Poom Promotion test)

1 품(First Poom)

박원환 이갑수 김영식 정상룡 이종성
Brad Gilliam 맹찬수 이창훈 박태우
박재호 이용희 이형준 김연훈 이재혁
윤홍열 Sherri Lang 배남희 이재복
김인구 안승국 유성준 이수준 김연식
이원형 이주희 임태기 임용호 허성욱
조보찬 김남준 최 호 김종환 김현철
노준성 이경원 유재규 박세일 김태경
이원구 권혁찬 김진권 강구완 손빈혁
임진태 고봉석 박광성 강석영 김이진
신형근 김형권 김문곤 변성우 문 국
신준호 장명규 최용덕 이태수 배정현
이창철 성시훈 김신섭 윤승록 황원준
김 철 이창원 정현진 송기일 주형식
최성욱 김철환 장영수 이신영 이종상
조용필 장석중 최형준 이철원 권성욱
라재승 지호성 김승준 황유식 윤영진
김은모 조원홍 홍성목 정한경 유형열
김용성 주희섭 김성훈 정현숙 김창호
박건규 이평우 남상용 김강석 김영준
손현준 정우순 한창훈 대재호 김관수
설관철 한준택 강현종 김승호 고병현
최강훈 김용호 최지영 이승훈 김준모
차승진 오동국 김재순 정 원 노왕태
성용환 김동민 김준태 김한상 양희훈
한상욱 이홍재 김우진 서삼범 김학승

이만득 안대혁 임범목 이혁원 양상엽
박성식 유애형 박지훈 김성우 유재훈
김성희 김호연 박경환 손세홍 김강배
우종호 이재병 김형주 이성규 김원삼
태용구 신비용 연상원 김익환 백승원
김대규 김대영 윤도선 이태형 정문구
심성보 문한주 송영원 한재경 이철만
홍준순 이정권 정재호 이영주 최재호
이종영 임두현 서장원 김길준 이희승
김형윤 김승훈 박주홍 신재용 엄재경
주상오 박운석 김지수 김성향 박용일
문정호 이상훈 이상윤 이한주 천사정
강정학 김현성 정우석 임종호 김현수
이완훈 김형근 노재진 김근태 한재윤
이병훈 신기현 홍성욱 Jaehette Kercher
한의섭 박진희 김영열 John Garber
신재상 조희수 서동호 David Hibscler
윤종혁 윤종일 이정율 정 진 최 준
손길환 유민종 박원섭 박상우 김현천
한성진 안정원 윤부현 강우철 김창석
서상교 김인수 고대경 박상용 이태관
조은성 오윤규 김태경 김윤수 홍종호
박경진 이규영 김두한 홍광호 연용석
이서호 박규용 정대영 명재형 최주찬
김형목 황규현 정윤구 김진우 장수정
김희준 김태훈 정동구 최남규 이정학
김상철 최선용 김준범 박용식 김현식
김정호 김민제 이장희 김민수 권민진
김태식 최규선 이웅희 김동호 박종철

한옥형 이승호 이창영 이기종 이광훈
이형석 김용희 이철훈 심 은 김동일
손정훈 조종찬 유재훈 이재위 강성진
한창석 신현중 정석진 홍성일 이정복
김도준 송재화 정승부 정석진 김기원
원도희 송준화 이지호 양진모 홍성규
민재준 김태운 유재용 윤성상 심재덕
서기철 양승만 한동환 조원무 윤문수
배재덕 유진석 김영일 하사현 황기호
이승훈 김승영 이희옥 노석우 임동진
이경환 김진옥 김중현 황찬우 김동환
민영기 박영태 성준현 성영권 이상우
인석일 최상연 안영의 신찬철 임창범
조두환 조광현 염기선 임창영 김재명
김재범 배성원 최병철 한영수 장창수
최두호 최정규 전세진 박영호 박상혁
한진규 이충희 전종익 한병완 이혁진
성인찬 이영선 안재성 황영근 김정기
박시범 김종현 최태진 이윤규 문미경

유충현 김영훈 송지형 강일성 서한서
송승환 최재우 이진만 권 하

2 품(Second Poem)

장동욱 이태희 김경식 이인환 표극창
목하균 송인근 임한상 김명수 진홍덕
김종호 전석환 최태식 김용훈 이정열
이형호 홍선명 신동현 이일기 정민준
이준호 김정환 조영기 최연선 최윤희
송기용 김종원 김재원 김현배 김찬희
최문석 오상배 이종서 장규상 이승하
양상욱 신창호 김기원 채현종 박정순
천훈조 임장혁 민두식 박병호 설성훈
김영빈

3 품(Third Poem)

정안태 정열태

제53회 승품심사 합격자 (76. 8. 8)

(The 53rd Poem Promotion test)

1 품(First Poem)

최국현 인석민 문정덕 이석원 이정훈
전만조 한석노 박희백 김홍길 김종관
강연승 김승래 한재범 김용수 권홍식
민홍식 조명희 신인수 이 준 김현기
남궁승 이성훈 고양우 윤종문 김태성
신성용 이영신 최정수 최주원 김태범
최재원 김태용 한우현 안준균 송영만
김경태 우수영 정승현 이병화 강병국
유남열 강병희 추원호 김태규 김용기
유숙종 전영창 강인수 고영균 최정남
유영석 허 돈 문승원 구자준 김준규

김대홍 박재민 김병희 정희섭 김신우
강문복 강윤호 박상환 임유희 유용상
황민수 정명허 김정호 이승훈 이원석
성기준 이태식 박범식 박재식 김문살
허 영 강정호 이 철 이수암 吳政桓
박진도 金榮洙 장준영 허명숙 지상정
許현寧 徐源暖 광대길 황인식 정경희
최홍수 朴峻模 박익성 김승욱 임병화
변정욱 정연택 김태성 김종원 이승무
김동균 임광빈 이용범 황인성 양정일
현철우 오종민 김대권 이주열 한규모
임재광 김양민 송순섭 김기완 위대환
윤상욱 金晟伯 오서구 이 욱 안창진
김태증 윤근배 김현석 이주형 홍준의

이현도 종호 Williams 이정호 강경호
 유정필 양근석 황규남 진봉수 배종화
 백창현 김희섭 김경수 曹永駿 민병일
 하용의 정문교 이인섭 장용준 權柱壽
 장희수 이윤재 장덕순 최재용 김광선
 전주원 崔恒壽 김성준 정철재 임하수
 유용진 李祐誠 윤영덕 이호종 이용호
 박영식 Mike 이상근 유영배 정철영
 김경수 최창호 박계용 崔元洵 조정현
 윤준용 김범상 이경식 김동학 원동준
 오세홍 최재원 최성봉 강병구 Teresa
 백영빈 진아란 제주홍 황재연 이형석
 최민영 윤성노 George york 윤성욱
 김용철 강희성 정석현 김경수 권재익
 진미란 김태원 안호길 유연민 김원천
 전창현 유종희 이우진 박민권 김규섭
 임용준 김성광 정병기 김성욱 강용석
 김구만 오종규 최봉락 이영진 김민기
 송 업 이명구 양충석 윤진원 조상진
 유기선 양병모 최은호 James Elkins
 천성원 Thomas Elkins 금순용 김은호
 이강연 이영일 김태훈 신성수 김종원
 홍연기 권민희 이은주 라경하 송남철
 김재환 주환욱 이완기 이승호 오상훈
 정용진 최명권 박종현 이남진 유종구
 나의식 유미선 김원석 임만신 김재윤
 김성균 이 철 김석봉 추교웅 이웅종
 이상명 김한수 강균희 정경천 신준희
 김종서 이순구 우정학 고규소 유영민
 유경식 오태립 허재영 하남일 전춘삼
 권오순 최성철 이석훈 정우용 김용태
 김봉주 박종철 추정우 채진수 손용재
 문동郁 이재협 정의석 이병철 김창대
 라용한 김인호 최영호 姜晟遠 서수경
 김영훈 박진찬 최성호 남병호 유재구
 한현수 장인기 김용식 원인수 조종연
 서준찬 김용욱 임재범 김동혁 윤근삼
 김대성 황우찬 김국철 조상조 정승영
 김덕신 최 활 안성준 신우석 이석우
 정정호 유윤상 최의행 羅炳奭 金珍赫

김용길 정도현 이진욱 강남규 구인서
 조기만 정광호 이시형 이상순 김경덕
 신범상 남궁철 정운우 최승우 임우근
 김석우 박영석 황규만 황수훈 박태진
 유동원 이주환 Micheal Thomas Vandrub
 최재영 박진수 이문섭 장성환 남궁준
 유제현 이의태 이근원 최우진 전병득
 이강선 남궁원 김윤경 김봉규 김지훈
 박정철 박준석 민성도 염상훈 최진욱
 이상윤 설윤호 열철광 노상욱 황인성
 이상훈 정정훈 서병근 이상현 이재홍
 심재현 오은호 서의영 閔炯翰 이해웅
 김세혁 조호용 김주남 박원기 김영식
 김승경 조현철 이원용 유광열 신광균
 문정웅 김호남 신성미 정기성 최성욱
 김기수 김선희 박상욱 배일권 라철운
 이동노 김종민 이정수 황철호 김남익
 박정희 최성기 김철호 배상욱 김태훈
 민병찬 박병철 박성호 임기영 이운용
 최도용 정철성 황인석 서정국 최기채
 정상윤 姜兌昊 전석창 김현수 김경표
 이권수 이성규 이상은 김태현 김훈창
 장후식 오상환 강진우 문기홍 문영배
 구재한 강윤식 하갑철 양 경 강덕훈
 방성태 권재웅 김성기 박종성 김민수
 안준호 전병오 안효성 이 승 이희용
 이정립 김용철 채희도 이인환 김동엽
 유광열 김상훈 김태순 이윤배 이주번
 최선호 박종후 이주현 김비오 오현진
 김효일 변호근 홍성표 박민구 John
 김우종 안명철 송정석 오규배 금동수
 장재국 金鍾縣 김종민 walter Smith, Jr.
 김종국 정학수 송권철 김승권 김유일
 박승인 황선승 유태호 이두석 원규석
 金秉준 이주엽 조경연 mary low Smitho
 조호준 조정현 이영석 이재경 유재영
 mosezelia Smith 이종재 김원기 지성진
 정재우 유철근 문영수 신상돈 김영현
 김한주 김영철 지양진 이용민 이지만
 윤국철 하상균 金容坤 김지광 진광범

Robert Jackson 차홍준 양태근 박종문
이종진 윤규섭 김문태 정의석 김용환
李昌垣 임성범 정기훈 신경수 안영규
김진욱 하광수 채승昊 김병수 이우경
김태환 강호수 유연철 신현구 김하수
이원구 박한수 송려선 박재욱 이익구
김기상 박종우 김민식 이정훈 尹銘院
김성주 하승희 우명식 어천우 김 신
박준균 이성용 정대중 이석재 이민제
김휘재 하성욱 방상석 박신현 박상수
차근만 장익진 채정현 전현원 이인수
김세금 안재권 이상연 이건식 채현奭
金光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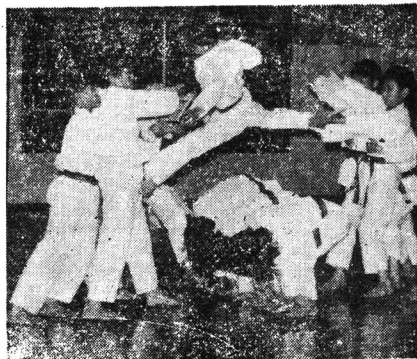
육동조 조재선 신철권 이동현 홍성남
염태식 이광명 엄해용 전정로 성성종
임재문 홍성민 천재익 김기성 강건희
민경진 김용훈 지국현 함성주 이동욱
서도원 김희철 임성훈 엄광희 엄정섭
유호상 이균기 김종완 김동원 위재영
김용완 유희창 안성빈 송경석 이법석
윤병돈 임형철 정용태 김명진 박대웅
김창욱 이효순 김주현 장기덕 이덕재
방백운 오호석 최성은 황의진 김종훈
이민규 김이중 장우순 배경수 함용상
Salvador K Chararrin 김영수 김석종
김영환 이경훈 유국현 박정환 유봉희
전성길 이규왕 서민우 최동우 김재은
임재홍 황인근 박경배 김홍석 민경호
이일균 천명규 양태석

2 품(Second Poom)

이원홍 이규윤 구영도 임치영 하영우
홍윤기 윤준수 박종수 이재현 이주현
장석현 이진성 박정진 김정복 마경훈
이윤환 우정훈 박운수 장민수 김철환
김석원 이 진 김태선 김기홍 이재구

3 품(Third Poom)

백광빈 박경항 이근홍 배갑태 지창호
윤주성 이승태 남경석 정명호



태권도 품세 교실

TAEKWONDO

ILLUSTRATED

태극 7장

TAE-GEUK 7 JANG

제공 : 교육문화위원회

품세선 : 八괘중 간(艮) 괘의 기호

품 수 : 25

동작수 : 33

태극 7장은 八괘의 간(艮)을 응용한 동작이다. 간(艮)은 멈춘다는 뜻으로 산을 상징한다. 무슨 일든 멈춰야 할 때는 멈추고 가야 할 때 가야한다 움직이고 정지하는것이 모두가 그 때를 잃지 않아야 만사가 순조롭게 성취된다.

산은 장엄하게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도 산의 무게있는 안정을 배워 경거망동하지 말아야한다.

이같은 진리는 태권도에서도 마찬가지다 비록 비호같은 동작이 재빨라 보이고 좋기는 하나 동작을 멈출때는 멈춰야한다. 그래서 동작에 범서기를 넣은것은 차기와 동작의 이동을 자유롭게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3. 두발제자리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R"방향을 향하여 "오른발서기"로 "바탕손 몸통안막기"

Keep the left foot fixed and turn the body to the right to face the direction of "R".

OREUN-BEOM-SEOGI BATANGSON-MOMTONG-ANMAKKI



준비 : "I"의 자리에서 G를 향하여 "기본준비서기"

Spread the left foot one step sidewise and face the direction of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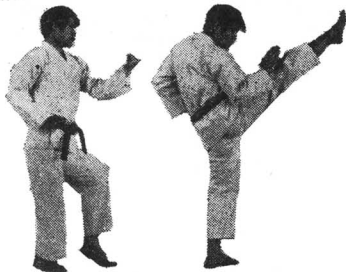
PYEONHI-SEOGI GIBON-JOONBI



1. 몸을 왼쪽으로 돌리며 "왼발서기" "바탕손 몸통안막기"

Turn the body to the left and face the direction of "L".

OEN-BEOM-SEOGI BATANGSON-MOMTONG-ANMAKKI



2. "L"방향을 향하여 오른발 "앞차기"를 차고 제자리에 떨어뜨려 "왼발서기"로 "몸통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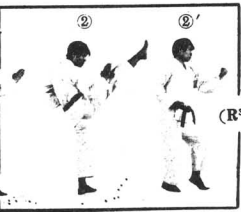
With the left foot fixed, do Apchagi with the right foot and pull it to drop on the original place.

OEN-BEOM-SEOGI MOMTONG-ANMAK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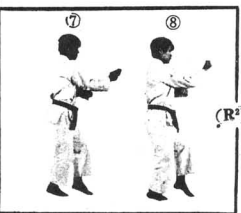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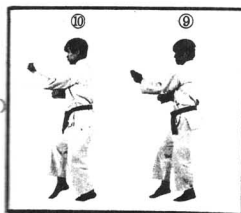
품세진행선

가(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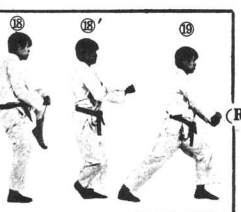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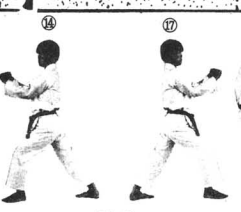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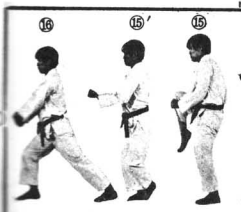
(L')



(R')



(R')



(R)



I(L)

수련 및 지도상의 유의점

태극 7장에는 “범서기” 동작이 많다.

“범서기” 동작을 정확하게 수련시켜 중심의 응용을 잘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작 “7” “8” 두 동작은 연속으로 팔리하여야 한다. 거드려 주고있는 등주먹에서 팔굽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동작 “9” “10”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동작 “7”의 “보주먹”을 할때는 두게있게 서서히 행하며 호흡조절을 하고 시선은 주위를 광범위 하게 주시하며 행한다.

※동작 “12”와 “12”는 연속으로 팔리하여야 한다.

“13”과 “13”도 마찬가지로.

※동작 “15”은 헤쳐막은 두팔을 약간 위로 올려 상대자의 머리 뒷통수를 손깍지를 끼여 잡고 밀으로 내려 상대의 얼굴을 무릎에 짓찧는다. 무릎도 동시에 쳐올린다.

※동작 “15”는 뒷표아서기를 할때 정중 뛰어나가거나 짓찧며 하는것이 아이고 돌격적으로 뛰어나가야 한다. 이때 두타리는 앞다리의 장단지와 뒷다리의 정강이와 엇걸어서 앞에서 보았을때 “다이아몬드의 모양”으로 되어야 한다.

보통 무릎과 오금에서 얼거서는 사람이 많다. 이는 좋지 않다.

또 제쳐지르기 하는 두주먹은 서로 약 5cm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어떤사람은 재쳐지르기를 하지않고 피주먹으로 상대의 양옆구리를 안으로 치는 데 이는 잘못이다. 반듯이 두주먹으로 제쳐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동작 16은 짓찧려 아래막기다.

보통 두주먹을 자자 양허리에서 나와 목표앞에서 엇걸려막는데 이도 잘못이다.

두 주먹이 한쪽 허리에서 엇걸 내려 눌러야한다.

※동작 20은 팔굽을 펴서 큰 동작으로 등주먹 바깥치기를 할 것이다.

※동작 “21”은 표적차기인데 보통 다리는 앞치 올라가고 표적인 손바닥을 움직여 발바닥에 치는 수가 많다. 이는 잘못이다. 표적이 되는 손은 그대로 두고 오른팔을 들어올려서 돌려 표적인 손바닥을 발바닥으로 찬다

※동작 25는 손날막은 왼손으로 상대자의 팔이나 옷소매를 잡아서 끝면서 옆치르기를 한다.



4. “R”신상에 왼발 “알차기”를 차고 제자리에 떨어
“몸통막기”

With the right foot fixed, do Apchagi with the left foot and pull it to drop on the original place.

OREUN-BEOM-SEOGI MONTONG-MAKKI



5. 오른발 제자리에 왼발 “G”선상에 한겨름내더
“오른범서기” “손날아래막기”

Move the left foot to the line of “G” with the right foot fixed.

OREUN-DWIT-KOONI SONNAL-ARAE-MAKKI



6. 오른발 “G”선상에 한걸음나가 “원뿔굽이” “손날
아래막기”

Move the right foot one step forward (on the line of “G”).

OEN-DWIT-KOONI SONNAL-ARAE-MAKKI



7. 오른발 제자리에 왼발을 "L"선상에 한걸음 내딛어 "원발서기"로 "바탕손 거드러 몸통안막기"

Keep both feet fixed.

THE SAME STANCE **OREUN-DEUNG-JOOMEOK-APE-CHIGI** OEN-DEUNGJOOMEOK still supports.



8. 그자리에서 서서 그대로 허리를 좌면서 등주먹"앞에치기"

Move the left foot to the line of "L₁" with the right foot fixed.

OEN-BEON-SEOGI BATANGSON-MOMTONG-ANMAKKI OEN-DEUNG-JOOMEOK is placed under the right elbow.



10. 그자리에서 서기 그대로 허리를 좌면서 등주먹"앞에치기"

Keep both feet fixed.

THE SAME STANCE **OEN-DEUNG-JOOMEOK-APE-CHIGI** OREUN-DEUNG-JOOMEOK still supports



9. 두발 제자리 몸을 "R₂"방향으로 돌려 "오른 범서기" "바탕손 거들어 몸통안막기"

Turn the body to the right and face the direction of "R₂" with both feet fixed.

OREUN-BEOM-SEOGI Batangson-MOMTONG-ANMAKKI OREUN-DEUNG-JOOMEOK IS PLACED under the left elbow.



11. 오른발 제자리 몸을 이리키면서 “모듬발” “모아서기”로 “보주막”(목앞에)

Raise the body and do Modeumbal, bringing the left foot to the right one without moving the latter.

MOASEOGI PUT **OEN-JOOMEOK** in front of the chin.



13



13

13. 오른발 “G” 선상에 한걸음 나가 “오른 앞굽이”로 “반대가위막기” 계속하여 “가위막기”

Move the right foot one step forward (on the line of “G”),

OREUN-APKOOBI BANDA-GAWI-MAKKI and **OREUN-GAWI-MAKKI** in succession



12

12. 왼발 “G” 선상에 한걸음 나가 “왼 앞굽이” “반대가위막기”(왼 앞굽일때 오른팔이 아래막기) 계속하여 “가위막기”를 한다.

Move the left foot one step forward to the line of “G”.

OEN-APKOOBI BANDA-GAWI-ANMAKKI (**OREUN-PALMOK-ARAE-MAKKI**), and **OREUN-GAWI-ANMAKKI** (**OEN-PALMOK-ARAE-MAKKI**) in succession (fast)



14

14. 오른발 제자리 몸을 왼편으로 돌려 “R” 선상에 왼발을 옮겨 “왼 앞굽이”로 “바깥팔목 돌통헤쳐막기”

Pivoting on the ball of the right foot, turn the body to the left and move the left foot to the line of “R₁”.

OEN-APKOOBI BAKAT-PALMOK-MOMTONG-HECHYO-MOKKI



15



15

15. 두주먹을 밑으로 내리며 오른발 “무릎치기”하고 “R”선상에 한걸음 뛰어나가며 “뒤편아서기” “두주먹 제쳐지르기”

Do Mooreupchigi with the right foot and dart one step forward (on the line of “R”).

OREUN-DWIT-KOASEOGI DOO-JOOMEOK-MOMTONG-JEOCHYO-JIREUGI (swiftly)



17

17. 왼발 제자리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오른발을 “선상에 한걸음 내려들어 “오른 앞굽이” “바깥팔목 뚫혀쳐막기”

Pivoting on the ball of the left foot, turn the body to the right and move the right foot to the line of “L₃”.

OREUN-APKOOBI BAKAT-PALMOK-MOMTONG-HECHYO-MAKKI

19. 왼발제자리 오른발 뒤로 물러들어 “왼앞굽이”로 “엇걸러 아래막기”

Keep the left foot fixed and pull the right foot backward (just as you face the direction of “L₃”).

OREUN-APKOOBI EOTGEOREO-ARAE-MAKKI (swiftly)



16

16. 오른발 제자리 왼발을 뒤로 물러 더으며 “엇걸러 아래막기”

Keep the right foot fixed and pull the left foot backward (just as you face the direction of “R₃”).

OREUN-APKOOBI EOTGEOREO-ARAE-MAKKI (swiftly)



18



18

18. 오른발 제자리 왼발무릎치기하고 “L”선상에 한걸음 뛰어나가 “뒤편아서기”로 “두주먹 제쳐지르기”

Do Mooreupchigi with the left foot and dart one step forward (on the line of “L₃”).

OEN-DWIT-KOASEOGI DOO-JOOMEOK-MOMTONG-JOCHYO-JIREUGI



19



22. 오른발 제자리 왼발을 약간 끌면서 몸을 이르기어
“오른편이서기”로 “등주먹 바깥치기”

Keep the right foot fixed and raise the body,
pulling the left foot.

OREUN-PYEONHI-SEOGI OREUN-DEUNG-
JOOMEOK-EOLGOOL-BAKAT-CHIGI



21. 몸을 왼쪽으로 돌리며 오른 발바닥으로 “표적차기
하고 “I”선상에 내려들어 “주춤서기”로 “팔굽표적
치기”

Do Pyojeok-Chagi with the right foot and drop it
(on the line of “I”).

JOOCHOOM SEOGI OREUN-PALKOOP-PYOJEOK-
CHIGI (facing “I”)



20. 오른발 제자리 왼발 “I”선상에 옮겨 “왼편이서기
로 “등주먹 바깥치기”

Lift up the axis of the right foot and the body,
and move the left foot to the line of “I”.

OEN-PYEONHI-SEOGI OEN-DEUNG-JOOMEOK-
EOLGOOL-BACKAT-CHIGI





25. 왼발 제자리 오른발 선상에 한걸음나가 “주춤서기
로 몸통 옆지르기 “기합” “그만” 오른발 제자리 몸
을 왼편으로 돌려 일어서며 “G”방향을 향하여 “기
본준비서기”

pulling the left hand to the waist (Yell)

Pivoting on the ball of the right foot, turn the
body to the left and face the direction of “G”.

PYEONHI-SEOGI GIBON-JOONBI



24. 아랫도리 “주춤서기” 그대로 “왼손날 몸통 옆막
기”

Keep both feet fixed.

The same stance OEN-HANSONNAL-MOMTONG-
YEOP-MOKKI



23. 오른발 제자리 몸을 오른편으로 돌려 왼발바닥으
로 “표적차기”를 하고 “I”선상에 내려들어 주춤서
기로 “팔굽표적차기”

Do Pyojeok-CHAGI with the left foot and drop it
(on the line of “I”).

**JOOCHOOM-SEOGI OEN-PALKOOP-PYOJEOK-
CHIGI (facing “I”)**



김운용총재 몬트리올 올림픽 한국 회의대표로 참석



I.O.C.위원장 킬라닌씨와 같이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with I.O.C. President Lord Killanin
at Montreal Olympic Game.



I.O.C.위원장 킬라닌씨와 김총재.
가운데가 주캐나다 미국대사.

I.O.C President Lord Killanin and
W.T.F. president. Center is U.S.
Ambassador to Canada.



미국 N.O.C 제1부위원장 Robert Kane씨
내외와 같이.

With U.S. Olympic Committee 1st Vice
President and Mrs Robert Kane at Montreal

**Dr. Un Yong KIM, PRESIDENT OF W.T.F.
ATTENDED XXIst OLYMPICS MONTREAL REPRESENTING THE KOREAN OLYMPIC COMMIT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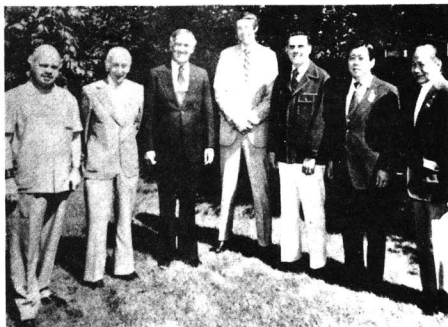


미국 N.O.C 위원장 클럼씨내외와 같이.

with U.S. olympic Committee President
and Mrs. Philip O. Krumm.

몬트리올 올림픽 기간중 있었던 World Game I회의를
마치고 좌로부터 Naidoo 보도협회사무국장, State
W.G. 집행위원장, Weider 보디빌딩국제연맹회장,
Uplinger사무국장, Peter 소소프트볼 사무총장, 김홍재,
필리핀 N.O.C 명예총무.

From left, A.I.P.S Secretary Naidoo, World
Game Executive Chairman Oscar State, Mr.
Weider, Mr.Uplinger, Mr.Porter, Phillipine
N.O.C.



샌프란시스코지방 우리 사범들(76년 8월 3일)

Korean Instructors in San Francisco Area.
(3 August 1976)

세기의 철권 무하메드 · 알리 국기원 방문

Ali visits Kukkiwon

김운용 총재로부터 명예단증을 수여받는
모하메드 알리.

Dr. Un Yong Kim, President of the W.T.F.
awarded Honorary black belt Dan Certificate to
Muhammad A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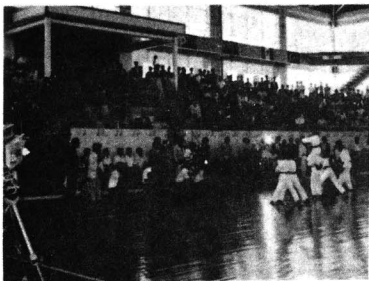


꽃다발을 증정받는 알리.

Muhammad Ali received a bouquet from
Namdaemoon Primary school boy.

태권도 연무시범을 관람하고 있는 모하메드 알리와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남대문국민학교 어린이 시범단.

World Heavyweight Boxing Champion
Muhammad Ali watched Taekwondo demon-
stration by Namdaemoon Primary school.



김총재주최 오찬회에서(영빈관) (중앙 김총재 좌측으
로 알리, 스나이더 주한미국대사 우측이 스틸웰 8군
사령관)

A luncheon party has given by Dr. Un Yong
Kim of the W.T.F. at Youngbinkwan.

(left of Ali is U.S. Ambassador Richard Sneider
right of Dr. Kim is 8th Army CG General
Stilwell.





레소토공화국 폴. 공주 국회의장이 국기원을 방문
태권도 시범을 관람했다.

Mr. Paul Marie Gondjout, National Assembly speaker of the Gabonese Republic visited Kukkiwon to observe Taekwondo demon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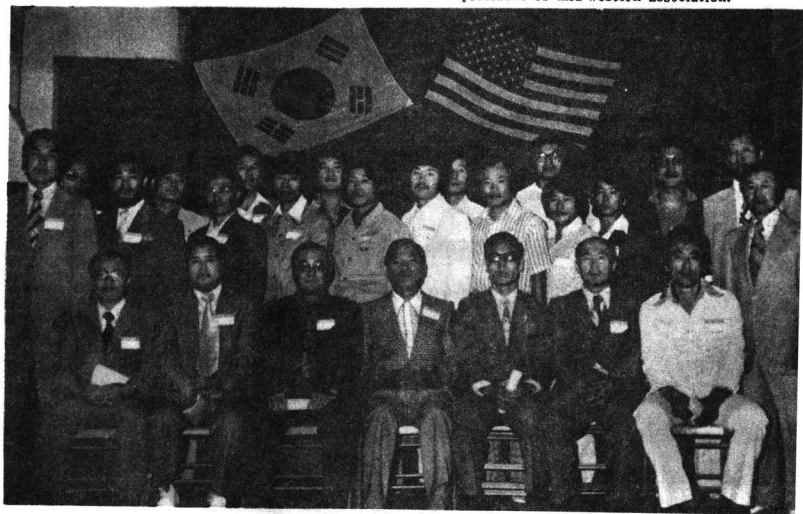
사우디 아라비아 태권도 수련생들이 김윤경 총재에게 인사를 마치고 기념촬영(76년 8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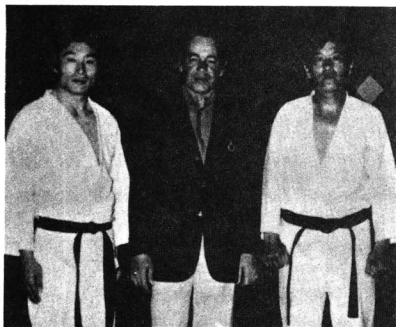
Taekwondo students of Saudi Arabia were trained at Kukkiwon for 2 weeks.

미국 시카고지역 중서부 태권도연합회 회원사범들 (앞줄 중앙이 이문용 시카고 총영사 그 왼쪽이 남태희연합회장)

Korean Instructors in Chicago area.

Center in front role is Consul General Lee Moon Yong, at his left is Nam Tae Hee, president of mid-western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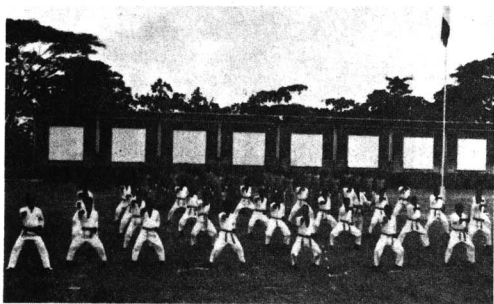
모로코에 뻗어간 태권도는 국왕 핫산2세(중앙)의 깊은 관심으로 날로 인기가 높아가고 있다.
(좌측이 김명옥, 우측이 이용기 사범)

There are enjoying great popularity Taekwondo in Morocco.

(from left Kim Myeng Ok, S.M. Le Loi Has San II, Lee Yong Ki.)

호주 시드니에서 활약하는 양우열 사범과 수련생들.

Taekwondo training in Austra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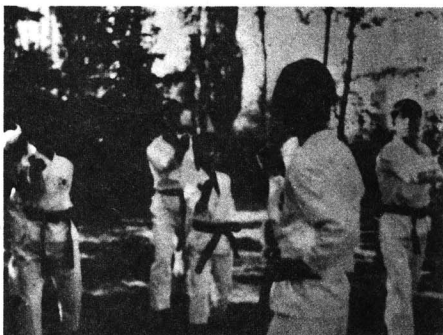


아이보리, 코스트의 군 태권도 수련장면
(우단이 김영태사범)

Taekwondo training in Ivory Coast.

터키대사관 자녀들이 야외에서 수련하는 모습
(앞에서 지도자는 김정관사범)

Instructor Kim Jeong Kwan teaching Korea Embassodor's Children in Turkey.





미국 블랙벨트 저널 · 윌리엄 · 크롤 편집인
국기원 방문

Mr Paul William Kroll of the Black
Belt Magazine Editor Visited Kukkiwon.

제2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파견
한국대표선수 최종선발전(미들급경기)

Final match for selection of Korean national
team for the 2nd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in Australia.



제3회 대한태권도협회 회장기쟁탈 전국 국민학교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푸라이급 결승전

The 2nd Primary school Taekwondo Championships
(Flyweight final game)



필리핀 체조협회회장 마르코스·바바여사가
국기원을 방문 국기원명예회원증을 받고 태권
도 시범을 관람(76. 10. 7)

Mrs. Fortuna Marcos Barba of the
Republic of Philippine Association of
Gymnasiums, Visited Kukki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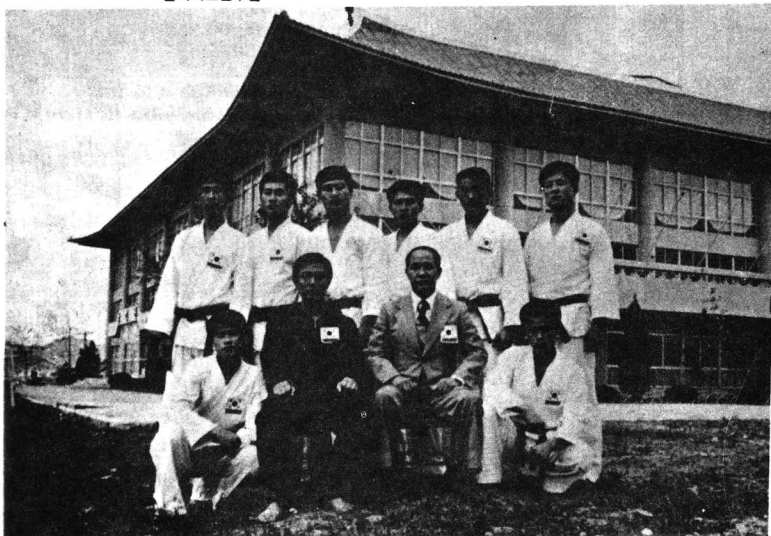
제2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한국대표
엄윤규 단장에게 단기를 수여하는 김희장

Dr. Un Yong Kim President of the KTA awarded
the Association banner to Mr. Un Kyo Um
Head of Korean national team for the 2nd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제2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파견
한국대표선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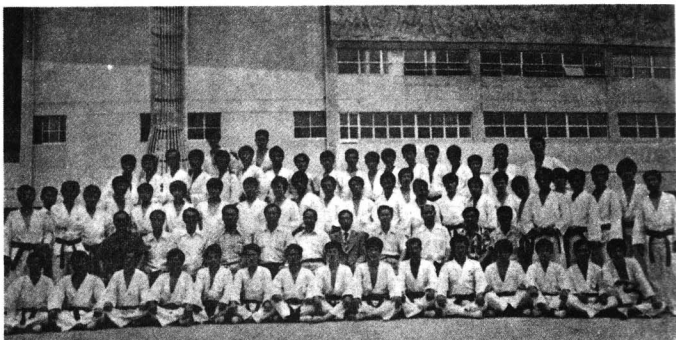
Korean National team for the
2nd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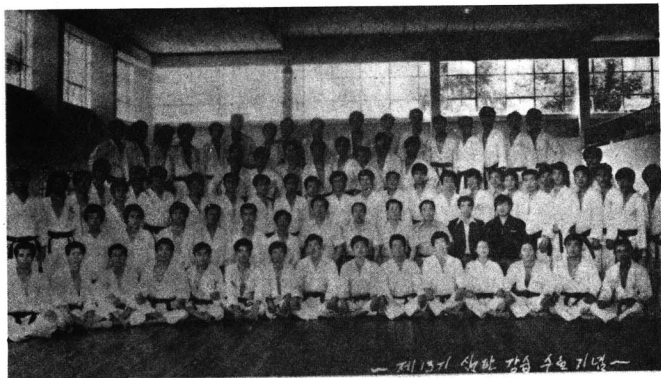


제17기 1차 지도자교육 수료식(76. 7. 30 전주)

Graduation ceremony of the 17-1
Instructors' training course. (30 July in ChunJoo)



제17기 2차 지도자교육 수료식(76. 8. 14 부산) Graduation ceremony of the 17-2
Instructors' training course. (14 August in Busan)



제12기 3급 심판강습회(76. 8. 16 부산)

The 12th 3rd Class Referee
Trining Course (76. 8.16 August in Busan)